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807

2018년도 2월

석사학위 논문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특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박 민 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특성

Characteristics of Pragmatic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박 민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특성

지도교수 신 문 자

이 논문을 언어병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박 민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민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윤효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전희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신문자 (인)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용어정리 ····· 6

Ⅱ. 이론적 배경 ····· 9

1. 언어의 구성요소들의 관계 및 기능주의 모형 ····· 9
2. 학령전기 아동의 화용언어발달 ····· 11
3.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말·언어능력과 화용언어능력 특성 ····· 14
   가. 언어와 비유창성의 관계 및 말더듬아동의 말·언어능력14
   나.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성 ····· 16
4. 화용언어능력 평가방법 ····· 21
5.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인식과 의사소통 태도 ····· 25

Ⅲ. 연구 방법 ····· 28

1. 연구 참여자 ····· 28
   가.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 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말더듬아동 ····· 28
(2) 일반아동 ····· 29
(3) 체크리스트 작성자 : 각 아동의 어머니 ····· 30
2. 연구 도구 ····· 30
가. 학령전기 화용언어능력 체크리스트(CPLC-P) 제작과정 ····· 30
나. 언어 및 유창성 검사도구 ····· 31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 32
가. 자료 수집 ····· 32
나. 자료 분석 ····· 33
4. 신뢰도 측정 ····· 33
가.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에 대한 신뢰도 ····· 34
나. CPLC-P에 대한 신뢰도 ····· 34
5. 자료의 통계처리 ····· 34

Ⅳ. 연구결과 ····· 36
1.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CPLC-P 총 점수 비교 ····· 36
2. 집단과 하위영역에 따른 CPLC-P 백분율 점수 비교 ····· 37
3. 집단 내 CPLC-P 총 점수와 의사소통 태도 점수 (KiddyCAT) 간 상관분석 결과 ····· 42

Ⅴ. 논의 및 결론 ····· 4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집단에 따른 CPLC-P 총 점수 비교 ····· 44
2. 집단과 하위영역에 따른 CPLC-P 백분율 점수 비교 47
3. 집단 내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간 관련성 ····· 51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53

참고문헌 ····· 55
부록 ····· 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목 차

<부록 - 1> 아동 화용능력 체크리스트(CPLC) 구성개념 ····· 66
<부록 - 2>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P) ····· 6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 1>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 29
<표 - 2> 집단 별 CPLC-P 총 점수 기술통계 결과와 집단 간 *t*-검정 결과 ····· 36
<표 - 3> 집단과 하위영역에 따른 CPLC-P 점수 이원혼합 분산분석 결과 ····· 37
<표 - 4> 집단 별 CPLC-P 하위영역 백분율 점수 기술통계 결과와 집단 간 *t*-검정 결과 ····· 37
<표 - 5> 학령전기 아동(말더듬+일반)의 하위영역 간 비교 40
<표 - 6> 집단 별 하위영역 간 비교 ····· 41
<표 - 7> 말더듬아동 집단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상관관계 ····· 42
<표 - 8> 일반아동 집단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상관관계 ····· 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 1> 언어의 기능주의 모형 ····· 9
<그림 - 2> 집단 별 CPLC-P 총 점수 비교 ····· 36
<그림 - 3> 집단 별 담화관리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 38
<그림 - 4> 집단 별 조절 및 적용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 38
<그림 - 5> 집단 별 의도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 39
<그림 - 6> 집단 별 비구어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 39
<그림 - 7> 말더듬아동 집단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간의 산포도 ····· 42
<그림 - 8> 일반아동 집단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간의 산포도 ····· 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Characteristics of Pragmatic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Park Mina

Advisor: Prof. Shin Moonja, Ph.D.

Department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reschool-age period is an important time in the interpersonal and speech-language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through fluent speech-languag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nterpersonal development. However, the current consensus is that the onset on stuttering typically occurs just before age 3, and most onsets occur between ages 2 and 5 years. If the child is referred for an initial assessment at an early age,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s(SLPs) will face two difficult and important decisions. The first decision is to distinguish between stuttering and normal disfluency that appears in the language development process. The second is to predict whether the child will recover from the stuttering if the child is diagnosed with stuttering. SLPs say the second decision is harder than the first decision. In order to predict whether the child will recover from the stuttering, SLPs should confirm any co-occurring speech-language disorders and the communication attitude for CWS(children who do stutter). Therefore, SLPs should proceed with detailed speech-language assessment in the initial assessment process of speech-language ability, and when evaluating disfluency of verbal language, an overall evaluation needs to be done.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communication attitude and other internal aspect of CWS as well as overt characteristics, such as the type of disfluency and frequency of disfluenc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pragmatic language ability in CWS and used the Children Pragmatic Language checklist-Preshool(CPLC-P) to examine the pragmatic language abilities of each children. The CPLC-P consists of 36 questions, and each child's mother is able to evaluate each child's everyday communication behavior with a Likert scale between 0 and 3. The mother who wrote the CPLC-P was inexperience with stuttering and had no negative perceptions of stutter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The first aim was to compare the total CPLC-P score of preshool-age CWS and CWNS(children who do nor stutter) and determine i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second purpose was to compare the scores for the different categories of the CPLC-P(discourse management, situational variations, communicative intention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determine i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shool-age CWS and CWNS. Finally, the last goal was to see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CPLC-P score and the score of the Kiddy Communication Attitude Test(KiddyCAT) in each group.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15 preshool-age CWS and 15 CWNS(matched for age and sex). To measure the overt stuttering, the two groups examined and verified the 300 syllables shown in the play. The CWS showed abnormalities disfluency(AD) more than three times for every three consecutive 100 syllables(300 syllables), and the CWNS showed AD less than two times for every three consecutive 100 syllables(300 syllables). In addition, the communication attitude was examined through the KiddyCA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found in the total CPLC-P scores. First, CWS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CWNS(p=.000). Secon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cores for the different categories of CPLC-P. CWS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CWNS(discourse management p=.000, situational variations p=.000, communicative intentions p=.003, non-verbal communication p=.000). Finally, neither group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otal CPLC-P score and KiddyCAT score(CWS group r=-.055, CWNS group r=.2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results suggest that pragmatic language in CWS is evaluated in the initial assessment process, and it is important to look at discourse management, situational variations, communicative intentions and non-verbal communication, etc. in detail. The assessment of pragmatic language and the assessment of communication attitude should be done individually. For example, SLPs should not try to predict pragmatic language ability with communication attitude scor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대인관계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유정옥, 2008). 또한 신체·인지·정서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말과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창한 말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rndt, 1986). 유창하지 않은 말 특성을 지닌 말더듬은 주로 아동기에 발생되어(Bloodstein & Grossman, 1981; Guitar, 2014; Manning, 2010; Van Riper, 1982; Yairi & Ambrose, 1992), 발달성 말더듬(developmental stuttering)이라 지칭되고 있다. 주위에 아동기, 특히 학령전기의 유치원생들과 대화하다보면, 우리는 "어, 그, 저"와 같은 간투사 사용, "엄마엄마엄마"와 같은 단어 반복 등 비유창한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언어재활사는 이들 모두를 말더듬이라고 진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Yaruss(1997)의 변별기준 등을 통해 말더듬과 언어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비유창성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Manning(2010)은 초기 진단과정에서 아동의 비유창성이 말더듬인지, 정상적 비유창성인지 변별하여 진단하는 것이 언어재활사의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Manning(2010)은 진단 이후에 또다시 언어재활사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말더듬이 회복될 것 인지 또는 지속될 것 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Yairi & Ambrose(2005)는 말더듬의 회복 및 지속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의사소통장애 동반 여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Bernstein Ratner(1995)는 의사소통장애 동반 여부가 이후의 치료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진단과정에서 말더듬 평가와 함께 전반적인 말·언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동반장애 여부 확인은 다소 어려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언어의 구성요소별 세밀하고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Manning, 2010).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말더듬 평가뿐만 아니라 화용언어능력(Weiss, 2004), 조음능력(Ryan, 1974; Weiss, 2004), 어휘능력 및 단어 인출 기술(Hall, 1996; Silverman & Bernstein Ratner, 2002) 그리고 발화길이 및 복잡성과 같은 구문능력(Logan & Contu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95) 등 언어영역별 평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언어영역 중 화용언어영역은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으며, 2013년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 제 5판(5th edition o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에는 사회적/화용적 의사소통장애(social/pragmatic communication disorder)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다. 언어의 기능주의 모형(Owens, 2012)은 화용언어영역이 다른 언어영역들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용언어영역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언어능력들과도 연관되어 있다(Aeredolo & Goodwyn, 1988; Thal & Tobias, 1992). 김영태(2014)는 화용언어영역 평가를 통해 형태, 구문 그리고 의미언어영역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힘든 어린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진단과정에서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는 간과되기 쉽다(김영태, 2014). 이는 표준화된 언어검사도구에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및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절차 및 평가도구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Tiegerman Farber & Radziewicz, 2008). 국내에서도 주로 의사소통 기능분석표(홍경훈·김영태, 2001)를 통해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해왔으나, 최근 한국 아동 화용언어능력 평가(Korean Pragmatic Language Assessment for Children: KOPLAC, 김영태 외, 개발 중) 그리고 아동 화용능력 체크리스트(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오소정·이은주·김영태, 개발 중)와 같은 평가도구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Hall, 1996; Nippold, 1990; Weiss, 1994; Weiss, 2004). Shaheen, Anter, & Hussin(2012)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화용평가 프로토콜을 통해 4세~7세 말더듬아동 집단의 화용점수를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물의 이름 및 기능에 대한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과 총 점수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고려한 치료프로그램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Weiss(2004)는 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말더듬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언어재활사가 대화와 같은 담화수준에서의 치료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말더듬 원인론 중에서 요구용량모델(demands and Capacities Model: DC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도 관련이 있다. 요구용량모델은 비유창성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용량과 아동에게 주어진 요구 사이에서 나타난 불균형 때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구문의 길이가 길고 복잡해질수록 비유창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길이, 대화참여자의 수 의 증가도 비유창성 빈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화용영역에서 오는 요구가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초과하였을 때, 비유창성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구성요소별 요구와 비유창성의 관계 측면에서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Hall, 1996; Nippold, 1990; Weiss, 1994; Weiss & Zebrowski, 1994). Weiss(1994)가 제시한 상호작용에 필요한 3단계와도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미, 구문, 형태, 음운을 구성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초분절적 요소 구성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차례 지키기 등 담화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다. Weiss(1994)는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르게 이러한 3단계 외에도 유창하게 조절하여 말해야하는 요구까지 추가로 받게 되므로, 말더듬아동의 치료프로그램은 상호작용에 필요한 3단계의 요구들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담화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말더듬 간접치료프로그램에서 대화상황에서 일어나는 말더듬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더듬아동의 의사소통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더듬아동이 아닌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대상이 되며, 언어재활사는 말더듬아동 부모의 반응시간, 말속도 등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돕는다. 이러한 상호작용 치료(interaction therapy)가 말더듬아동의 유창성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어 왔으며(Millard, Nicholas, & Cook, 2008), 대표적으로는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법(palin parent child interaction therapy: Palin PCIT)이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임으로 말더듬아동의 의사소통 방식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Nippold & Rudzonski, 1995; Peter & Guitar, 1991). 그리고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치료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초기진단과정에서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유창성 증진과 함께 의사소통 기술 등 화용언어능력 증진을 돕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치료 예후를 이끌어올 수 있다. 또한 서수진(2013)은 정상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은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우관계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larizio(1997)는 화용언어능력 결함에 대한 조기중재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화용언어능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또래 및 교우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ibbler(2006)는 학령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말더듬이 의사소통, 학업능력 등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는 과제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 토론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감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Ribbler(2006)의 연구를 통해 오로지 말더듬이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학령기 말더듬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 및 의사소통 시도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더듬의 시작시기와 지속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로 학령전기보다 학령기 말더듬아동이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사소통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이는 감정 및 태도와 같은 내면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말더듬에 대한 조기중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언어재활사가 말더듬아동의 외현적인 말 특성 외에도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언어재활사는 말더듬 진단 이후에 말더듬의 지속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Manning, 2010). Conture(1997)는 대다수의 언어재활사들이 말더듬과 정상적 비유창성 변별보다 아동이 현재 보이는 말더듬을 계속해서 보일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에 보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더듬의 회복 및 지속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비공식적인 모니터링, 말더듬 지속기간, 말더듬 가계력 그리고 화용언어능력 등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Ambrose et al.(2015)은 말더듬 지속 및 회복 요인으로 의사소통 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내면적인 특성이 중재과정에서 고려된다면 보다 성공적인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기진단과정에서 외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특성인 의사소통 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Ⅱ(Paradise Fl-uency Assessment-Ⅱ: P-FA-Ⅱ,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와 같은 전반적인 유창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2세 정도의 어린 말더듬아동들도 비유창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Ambrose & Yairi, 1994; Boey et al., 2009),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말더듬의 시작 및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Logan & Carusi, 19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nslow et al., 1994). 그래서 부모보고가 아닌 자기보고를 통한 의사소통 태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이지숙·심현섭·이수복(2013)은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 평가방법의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 Communicati-on Attitude Test: KiddyCAT, Vanryckeghem & Brutten, 2007)를 번역하여 연구과제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3세~5세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의 주된 시작시기이며, 화용언어발달 및 능력이 중요한 학령전기 3세~6세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이들과 생활연령과 성별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하고자 한다. 화용언어능력 평가에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기존의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를 기반으로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hildren' Pragmatic Language Checklist-Preschool: CPLC-P)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CPLC-P 총 점수뿐만 아니라 4개의 하위영역별 비교도 함께 진행하여,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말더듬아동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점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가지고 있는 언어 외적인 요인 중 의사소통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 및 내면적인 측면이 화용언어능력 즉,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말더듬아동 언어사용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문제

가.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은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 총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나.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은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 하위영역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1) 담화관리 백분율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상황에 따른 조절과 적용 백분율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의사소통 의도 백분율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 비언어적 의사소통 백분율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다. 각 집단 내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 총 점수와 의사소통 태도 점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용어정리

가. 유창성

유창성을 언어와 말 산출 측면에서 고려한 Starkweather(1987)는 Filmore(1979)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먼저 언어적 유창성(linguistic fluency)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에는 의미적 유창성, 구문적 유창성, 음운적 유창성, 화용적 유창성이 포함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의미적으로 유창한 화자는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문적으로 유창하다는 것은 문장의 복잡성이 높으며, 음운적으로 유창한 화자는 의미가 없고 낯선 단어, 길고 복잡한 말소리(음소), 음절을 연속적으로 발음하는데 능숙한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화용적 유창성을 갖고 있는 화자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언어적 반응을 제 때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으로 구어유창성(speech fluency)은 말속도, 지속, 동시조음, 연속성과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연속성은 음절과 낱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멈춤이 있거나 혹은 없는 정도와 관련된다. 노력은 언어적 계획에 투자된 노력과 근육운동과 관련된 노력으로 나누고 있다.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에서는 말이 산출되는 과정을 개념, 형식, 조음단계로 구분하였다(Levelt, 1989). 민경주(2007)는 이 세 단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유창성이며, 말더듬은 대표적인 유창성장애로 말 산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말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 비유창성과 말더듬

신문자(1997)는 산출되고 있는 말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끊어지는 것 외에도 말속도가 불규칙적인 것 그리고 말하는 데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는 것을 고려하여 말더듬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말더듬은 대부분 2세~5세 정도의 학령전기 시기에 시작된다고 한다(Bloodstein & Grossman, 1981; Yairi & Ambrose, 1992).

Zebroski(1994)는 정상적인 비유창성과 말더듬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말더듬아동은 단어(word)보다 작은 언어학적 단위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을 100단어 중 3회 이상 보이며, 일반아동은 그보다 적은 횟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어권과 달리 한국어는 단어보다 음절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신문자, 1997). 박지현(2002)은 연구자와의 대화상황에서의 아동 발화 중 300음절에서 나타난 비유창성 빈도를 측정하였을 때, 연달아 이어지는 3개의 100음절마다 3회 이상의 낱말 내 비유창성(within-word disfluency)을 보인 아동들을 말더듬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말더듬 유무 확인을 위해 박지현(2002)의 연구와 같은 기준으로 비유창성 빈도 측정 및 분석을 하였으며, 비유창성 유형은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Ⅱ(P-FA-Ⅱ,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에서 제시한 비정상적 비유창성 유형(주저-비정상적, 간투사-비정상적, 미완성/수정-비정상적, 반복2, 비운율적 발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화용언어능력

화용언어능력(pragmatic language ability)은 특정한 문맥(context)과 특정한 목적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Prutting & Kirchner, 1987). Hymes(1972)는 이를 화자가 언제 어디에서, 대화상대방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어느 정도 말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구어와 같은 직접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얼굴표정과 몸짓과 같은 비구어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도 포함한다.

화용언어능력은 대화에서의 화용능력과 이야기에서의 화용능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Paul, 2012). Nipppold et al.(2005)에 의하면, 대화(conversation)는 평상시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타인과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에는 두 명 이상이 자유롭게 대화차례를 주고받게 된다(한승희, 2015). 이야기(narrative)는 담화(discourse)의 한 장르로 문장들 간에 시간 또는 인과적 결합이 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사회적 독백을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Owen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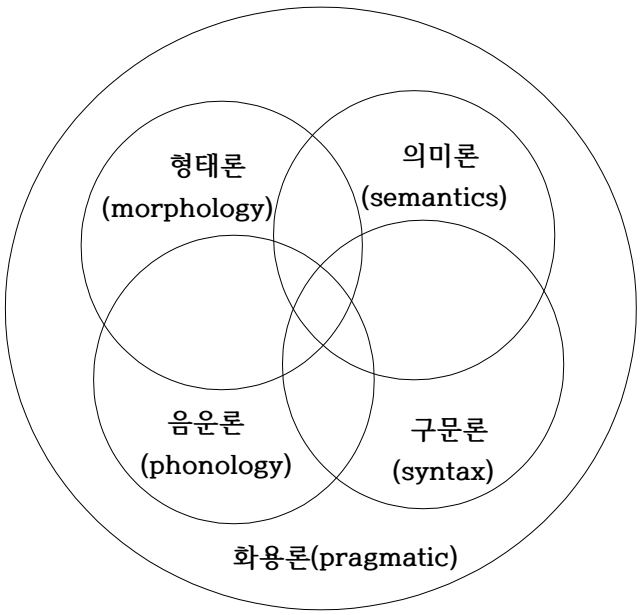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1. 언어의 구성요소들의 관계 및 기능주의 모형

언어는 크게 이해양식(receptive language modalities), 표현양식(expressive language modalities)으로 나눌 수 있으며(Lahey, 1988), 각 양식에는 언어의 형식(form), 내용(content) 그리고 사용(use) 세 가지 측면들이 통합되어 있다(Bloom & Lahey, 1978; Chapman, 1992; Miller & Paul, 1995). Bloom & Lahey(1978)는 이러한 세 측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언어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형식, 내용, 사용 측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언어 기능주의 모형
(Owens, 2012)

더 세분화하여 언어의 기본적인 규칙 체계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들이 형식에는 형태론(morphology), 구문론(syntax), 음운론(phonology), 내용에는 의미론(semantics), 사용에는 화용론(pragmatic)이 포함되어 있다(<그림-1> 참고). 내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개별 단어의 의미 파악, 단어들의 의미 있는 조합과 이에 내포된 숨은 의미에 대한 이해 및 표현을 말하며 의미론과 관련 있다. 형태는 구문론과 관련 있으며,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 구성을 하는 규칙을 말한다. 그리고 사용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문맥에 맞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언어의 화용론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요소들은 관계는 <그림-1>과 같이 언어의 기능주의 모형(Owens, 2012)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 언어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한 요소에서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주거나 발달적 변화를 도와줄 수 있다(김영태, 2014). 예를 들어, 학령전기 시기에 어휘의 양적인 측면의 증가는 좀 더 길고 복잡한 구문 산출과 다양한 범위의 의사소통 의도 표현에 영향을 주거나 유도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화용론이 다른 구성요소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Owens(2012)는 기능주의 모형이 화용론이 언어의 전반적인 조직 원리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화용론을 통사론, 구문론, 음운론, 의미론을 조직화 해주는 밑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용론은 상황적, 언어적 맥락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있다(Bloom & Lahey, 1978). 그러므로 화용론이 조직 원리 및 밑바탕을 이루는 통사론, 구문론, 음운론, 의미론과 같은 다른 언어의 구성요소들도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자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등과 같은 맥락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어휘 선택 및 언어형식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 외에도 화자가 고려해야하는 청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인종, 생활방식, 사투리,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이 있다(Owens, 2010). 이 중 역할의 예를 들면, 학술대회에서 맡은 발표자 역할은 매우 공식적일 수 있지만, 발표가 끝나고 동기들과의 뒤풀이 모임에 가서의 역할은 비공식적일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도는 그 내용 및 형식을 선택하기 전에 결정되어 지는 것을 통해서도 화용론이 언어의 전반적인 조직 원리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Bloom & Tinker, 2001; Owens, 2012). 예를 들면, 학령전기 아동이 맛있는 과자를 먹을 때, 그것을 요구하여 얻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맥락에서 '과자'와 '주세요.'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과자 주세요.'라는 문장 구조를 만들어 낸다. 언어는 배워야하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임으로 언어가 의사소통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지에 대한 화용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 내용(의미론)과 형식(형태론, 구문론, 음운론)에만 초점을 맞추어 중재하게 되면 이후에 전이 및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Weiss, 2004). 따라서 언어가 실제상황 및 의사소통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평가, 중재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학령전기 아동의 화용언어발달

학령전기 아동들은 주된 대화상대방인 엄마 등 대화를 나누면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러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서 친구 및 또래로 의사소통 대화상대방의 범위가 커진다. 또래아동은 화용언어능력의 결함을 비롯한 학령전기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중재원(source of intervention)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Paul, 2003). 또한 성인 내에서도 버스기사 아저씨, 유치원 담임 교사 등 아빠, 엄마 이외에 다양한 대화상대방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학령전기 아동들은 보다 폭 넓은 대화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에 맞게 발화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등 화용언어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령전기 화용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의사소통 의도 및 산출형태에 대해 살펴본 것들이었다. 즉, 연구자들은 연령 대 별로 어떤 유형의 의사소통 의도들을 스스로 표현하는지, 또한 그 때에는 무슨 언어 산출형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홍경훈·김영태, 2001). Bates(1976)에 의하면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 단계는 총 5개의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초보적인 의사소통 행동 단계(생후 3개월)에는 몸짓, 울음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한다고 한다. 목표지향적인 의사소통 행동 단계(생후 4개월~7개월)는 울음과 웃음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며, 도구적인 전환기 행동 단계에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짓 또는 발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한다고 한다. 언어 이전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생후 11개월~14개월)에는 울음과 얼굴표정보다 더 발달된 행동으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언어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생후 14개월 이후)는 첫 낱말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etherby, Yonclas, & Walker(1988)는 언어 이전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 이후에 해당되는 생후 11개월~27개월 아동들의 의사소통 의도 발달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 낱말 시기(생후 15개월~19개월)에는 몸짓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의도를 표현하였으며, 낱말 조합이 길어질수록 몸짓보다는 말을 통해 의사소통의도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두 낱말 시기(생후 24개월~27개월)가 지나게 되면서 몸짓은 말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Capirci et al.(1996)은 몸짓, 표정, 자세 등과 같은 제스처는 크게 지시적 제스처(deictic gestures)와 표상적 제스처(representational gestures)로 나누었다. 보통 가리키기(pointing)와 도구적 제스처(instrumental gestures)가 포함된 지시적 제스처가 먼저 나타나며, 점차 관습적 제스처(conventional gestures)와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s)와 같은 표상적 제스처를 아동들이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오선주, 2014). 보통 생후 13개월에는 사물의 속성을 상징하는 몸짓 등 표상적 제스처의 사용이 나타나며(Thal & Bates, 198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빈도가 늘어난다고 한다(김의향·김명순, 2006; 안소정·방희정·이순행, 2010).

이와 같이 말이 주된 언어 산출형태가 되면서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도의 수가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다양해진다. 홍경훈과 김영태(2001)는 생후 24개월에 대부분의 의사소통 의도 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wens(2012)에 의하면 생후 24개월 이전의 한 낱말 수준 시기에 주로 대답/반응하기, 이름대기, 저항/거부하기, 부르기/인사하기, 사물/행위/정보 요구하기, 반복하기 등과 같은 기능들이 먼저 발달되며, 고차원적인 인지·구어능력이 필요한 언급 및 진술 그리고 명료화 요구하기 같은 기능들은 늦게 발달된다고 한다. 3세가 되면 상대방의 명료화 요구에 본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며, 그에 따른 수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O' Neill & Topolovec, 2001). 학령전기 아동은 상대방의 명료화 요구에 아동 본인이 반응하는 것은 단순하게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명료화 요구를 할 때, '뭐?', '응?'과 같은 반응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한다.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도의 양적·질적인 증가는 반응만 주로 하던 수동적인 대화 참여자에서 자신의 의도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능동적인 대화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한다. Ninio et al.(1994)은 생후 16개월 이전에는 아동들이 특정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하나의 발화로 생후 16개월~24개월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할 때, 여러 발화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다 많은 의사소통 의도들을 표현 할 수 있게 되면서 어휘의 수가 확장되고, 한 낱말 수준에서 낱말 조합을 통한 문장 수준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Owens(2012)는 3세가 되면 관심 있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주제 유지를 하며 대화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다 5세 정도에는 아동의 약 50%가 12회 정도의 차례를 거치면서 특정 주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죽, 학령전기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제를 유지하는 능력도 안정적이며, 대화 도중에 갑자기 엉뚱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김영태(2014)에 의하면, 학령전기 아동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차례 마침지점(turn completion points)을 알아채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 Craig & Gallagher(1993)는 본인의 말 차례에 아동이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약 1.5초로 보고 있으며,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약 3초로 보았다고 한다(이효진·김영태, 2001). 아동이 차례를 주고받는 속도가 이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대화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주제를 유지하며, 대화 차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dams(2002)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화용언어발달과 관련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대략적인 연령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세에는 성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주제유지, 명료화하기 그리고 대화 상대방에 따른 적절한 말하기 스타일 조절 등과 같은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말하기 스타일의 증가 및 사용역(register)은 학령전기 아동의 대화 참여자로서의 발달을 반영해줄 수 있다고 한다(Owens, 2012). Anderson(1992)에 의하면 4세 이후에는 역할놀이(roll play)를 하면서 다양한 말하기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으며, 목소리의 높낮이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학령전기 아동이 여러 역할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맡은 역할에 따른 변화 및 조절은 아동의 연령과 역할놀이 등에 대한 경험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아동들의 첫 50단어 어휘집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여기, 저기, 이것, 저것과 같은 가리킴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Owens, 2012). 이러한 가리킴 말(deixis)들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동이 본인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화용언어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lark & Sengul(1978)에 의하면 학령전기에 가리킴 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몇몇 아이들은 초등 학령기가 되어서도 가리킴 말을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 대화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3세가 되면, 듣는 이의 배경지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Owens, 2012). 이를 통해 아동은 듣는 이가 알거나 모른다고 파악한 것을 근거로 듣는 이에게 필요한 정보의 양을 결정하여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3세~4세쯤에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행동들이 거의 능숙해지게 된다고 한다(Adams, 2002). 그리고 5세가 되면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간접적인 의도 표현에 대해서 추론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상위언어적인 기술들의 발달과 함께 6세에는 앞에 나온 어구를 가리키는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이 숙련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학령전기 아동들의 화용언어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들을 구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듣는 이의 관점과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좀 더 자발적이고 능숙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말·언어능력 및 화용언어능력 특성

가. 언어와 비유창성의 관계 및 말더듬아동의 말·언어능력

언어의 구성요소별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학령전기 시기에 말더듬이 주로 시작되며(Guitar, 2014), 아동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구, 문장 등이 아동의 언어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비유창성은 더 나타나게 된다(Anderson, 2008). 예를 들어 아동마다 개인차 존재하지만, 대개는 짧고 간단한 발화보다 길고 복잡한 발화를 하고자 할 때(Sawyer & Yairi, 2006; Yaruss, 1999) 그리고 화용론 측면에서는 중요한 사람, 환경, 사건과 같이 면접 상황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유창성이 더 빈번해진다고 한다(권도하 외 6인, 2011; Bloodstein, 2002). 이러한 현상들은 비유창성 및 말더듬의 발생이 언어의 구성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각각의 언어의 구성요소들이 비유창성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말더듬아동의 언어이해능력과 언어표현능력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Hall, Wagovich, & Bernstein Ratner, 2007).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은 일반아동보다 낮다는 의견(Anderson & Conture, 2001; Anderson, Pellowski, & Conture, 2005; Anderson, 2008; Buhr, 2007; Guitar, 2014)과 일반아동과 비슷하며 차이가 없다는 의견(Miles & Bernstein Ratner, 2001; Nippold, 2012; Yairi, Ambrose, & Throneburg, 1996)이 있었다. 두 가지 외에도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들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의견들도 있었다(Watkins et al., 2003). 이와 같이 현재까지도 연구자들의 의견은 서로 상이하며,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으로는 말더듬아동이 또래의 일반아동보다 언어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단순히 일반아동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말더듬아동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에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간의 차이가 크며, 본인의 청자에게 감정, 생각, 의견들을 발화해야하는 표현언어능력이 더 낮았다고 한다(Anderson & Conture, 2001). Ntou-rou, Conture, & Lipsey(2011)는 이러한 편중된 언어발달이 비유창성 및 말더듬을 야기 시켰을 수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표준화된 언어검사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관찰 및 자발화 분석도 연구과제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준참조평가방식의 사용은 보다 명백하게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을 언어의 구성요소별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Bernstein Ratner(1997)는 표준화된 언어검사보다 음운영역, 형태영역, 의미영역, 구문영역, 화용영역과 같이 나누고, 각 영역마다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음운영역과 구문영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음운영역에 대한 연구는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조음 및 음운능력 증진을 목표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말더듬이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기도 하였다(Nippold, 2004). Yairi & Ambrose(2005)에 의하면 임상현장에서 음운장애와 말더듬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동들이 임상현장의 30~35%라고 하며, Conture(2001)는 말더듬아동의 약 33.3% 정도가 조음장애를 함께 보인다고 하였다. 그 만큼 말더듬과 음운영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오랫동안 보고되어 왔다(Blood & Seider, 1981; 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Conture, 2001). 하지만 말더듬아동 24명을 대상으로 조음음운능력과 말더듬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조음음운오류와 비유창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Throneburg, Yairi, & Paden, 1994). Yairi & Ambrose(2005)도 말더듬의 중증도와 음운능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구문영역에 관해서는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복문산출이 적고 짧고 단순한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과(김다혜, 2011; Howell et al., 1995; Wall, 1980), 일반아동과 비슷한 구문능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은지, 2013; Nippold, Schwarz, & Jescheniak, 1991).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은 유창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언어재활사가 말더듬으로 진단하고 치료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민경주, 2007). Bernstein Ratner(1995)는 치료프로그램 계획을 위해서 초기평가과정에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다른 말·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에 관한 지속적인 최근 연구결과 도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성

화용영역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문맥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 및 발화 특성, 상호작용 특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화용언어능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크게 의사소통 의도, 대화능력과 같은 두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김영태, 2014). 하지만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성에 관련한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 의도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곽자영, 2008; 노유리, 2003; 박지현, 2002).

박지현(2002)은 4세 1개월~6세 3개월의 말더듬아동 11명의 의사소통 의도 출현율을 성별, 생활연령, 언어발달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하였다. 동일한 유도절차를 통해 총 4번의 놀이상황(피자 만들기, 햄버거 만들기, 집 꾸미기, 마을 만들기)에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홍경훈·김영태(2001)의 의사소통의도 분석체계를 이용하여 전체 출현빈도수, 7개의 상위범주(요구하기, 반응하기, 언급하기, 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술하기, 메시지 수신표현, 구성요소, 발전된 표현)별 출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의도 '전체 빈도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7개의 상위범주 중 메시지 수신표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한다. 상위범주 메시지 수신표현은 상대의 질문이나 요구가 없지만, 대화 상대방의 의사소통 메시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하며, 하위범주에는 '수용', '승인/동의', '부인/반대' 3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3가지 중 '승인/동의'와 '부인/반대' 출현율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대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건네거나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구어표현을 통해 반응하려는 의사소통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논의하였다. 하지만 박지현(2002)은 정확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표정, 몸짓과 같은 비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의도 표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한다.

곽자영(2008)은 6세~11세 학령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의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박지현(2002) 연구결과와 같이 전체 의사소통 출현빈도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아동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었다. 먼저 학령기 말더듬아동 집단은 대화유지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는 수동적인 대화자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상대방 성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말더듬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이 같은 맥락에서 비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반응한 것에 비해, 구어표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어표현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노유리(2003)는 말더듬아동이 표현하고자하는 의사소통 의도에 따라 비유창성 빈도가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4세~7세 말더듬아동이 대화상대방의 질문에 반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본인의 생각 및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에 비유창성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관련 국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Meyers & Freeman(1985)의 연구가 있다. 이는 말더듬아동이 아닌 말더듬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와 나눈 대화, 처음 만나는 말더듬아동과 나눈 대화 그리고 낯선 일반 아동과 나눈 대화에서 보인 상호작용 특성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 말더듬아동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 부차적으로 살펴본 결과,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명령문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 더 지시적이었으며, 어른의 발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다음으로 Langlois, Hanrahan, & Inouye(1986)는 5세~9세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과 각 아동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발화 유형, 아동의 반응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발화 유형에는 질문, 명령,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반응 유형에는 비구어, 발성, 구어, 무반응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의 반응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반응 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도 박지현(2002), 곽자영(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말더듬아동이 비구어 반응 보다 구어 반응을 통해 의사소통 하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전체 상호작용 시간의 2~7% 시간 동안은 말더듬아동이 대화상대방인 어머니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말더듬아동이 유창하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만큼 구어표현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에 대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말더듬아동들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국외연구 중 Shaheen, Anter, & Hussin(2012)의 연구가 있었다. 4세~7세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화용평가 프로토콜을 통해 구해진 점수를 비교하였다. 총 점수뿐만 아니라 프로토콜의 5가지 하위영역에서 비교하였으며, 하위영역에는 구어 이전의 의사소통(preverbal communication), 사물의 이름 및 기능 이해(object function), 대화 운용(managing conversation), 의사소통 의도(intentional communication), 담화 기술(narrative skill)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사물의 이름 및 기능 이해에 관한 영역을 제외한 4개의 하위영역들과 총 점수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말더듬아동 집단 내에서도 말더듬 중증도와 Bloodstein(1960, 1995)의 말더듬 진전과정이 나아감에 따라 구어 이전의 의사소통 영역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전체 화용 기술 점수가 일반아동 집단은 연령 증가와 함께 높게 나타났으나, 말더듬아동 집단은 구어 이전의 의사소통 영역 점수는 감소하였으며, 다른 화용 영역에서도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치료프로그램에서 말더듬아동들의 화용언어영역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에 대해 살펴본 국내연구로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의 연구가 있다.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는 5세~12세 말더듬아동 집단을 포함하여 아동용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연구 목적에 따라 일반아동 집단(남자, 여자)과 장애군 집단(언어발달지연, 자폐범주성장애, 지적장애, 말더듬, 기타 장애)이 각각 어떤 프로파일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 별로 4개의 하위영역에서 나타나는 프로파일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반아동 집단은 하위영역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말더듬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의 프로파일에 비해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CPLC 총 점수에 대한 추리통계 결과는 구하지 않았으며,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집단 간 비교하였다. 그 중 말더듬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들과 비슷한 CPLC 총 점수 평균을 보였으며, 일반아동 남자 집단(M=52.25, SD=9.80), 말더듬아동 집단(M=50.61, SD=15.71), 일반아동 여자 집단(M=47.96, SD=9.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 및 중재과정에서 담화 수준에서 이해 및 산출능력을 고려해야한다(Paul, 2012). Weiss(2004)는 말더듬아동의 치료를 계획 할 때, 언어치료사들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고려하여 담화 및 화용영역에 대한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Weiss(1994)는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단계는 의미, 구문, 형태소와 음운을 구성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 다음으로 초분절적 단계, 마지막으로 차례 지키기 등 담화 수준 단계로 보았다. 그리고 화용영역을 중점으로 언어 구성요소들이 말더듬을 악화시키거나 유창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살펴보았다. 저자는 말더듬아동들은 위에서 제시한 3단계에서 필요한 요구 외에도 추가로 유창하게 조절하여 말하는 것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좀 더 큰 요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말더듬 시작에 대한 요구-용량 모델을 바탕으로 생각하였을 때에도 구문의 길이 및 복잡성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의 길이, 대화참여자의 수 등도 말더듬아동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eiss(1994)는 말더듬 평가를 문장 수준이 아닌 담화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화 담화수준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는 Winslow & Guitar(199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저녁식사 하는 동안 가족 간의 대화를 분석하여 5세 말더듬아동의 대화 주고받기와 유창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말 주고받기의 규칙이 말더듬 빈도와 간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차례주고받기에서의 의사소통 요구가 클 때에는 비유창성이 증가하고 반대로 요구가 적을 때에 유창한 발화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리고 이야기 담화수준에 관해서는 Weiss & Zebrowski(1994)의 연구가 있다. Weiss & Zebrowski(1994)는 이야기 담화수준에서 나타난 말더듬아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이야기를 이미 들은 청자, 듣지 못한 청자 각각에게 말더듬아동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발화 길이 및 이야기 구성에서 비슷한 수행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아동 집단이 청자의 사전지식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듣지 못한 청자에게 더 길고 자세하게 들려주는 반면에 말더듬아동 집단은 두 청자들에게 비슷한 발화 길이를 보였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말더듬아동이 비유창성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발화 길이를 줄여서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논의하였으며, 말더듬아동의 언어평가과정에서 담화 수준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Blood et al.(2003)은 학령기 말더듬아동의 동반장애 출현율과 퍼센트를 살펴보았으며, 언어장애는 표현과 수용으로 나누어 각 의미, 구문, 화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수용언어에서는 의미(12.1%), 구문(10.2%), 화용(9.1%)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현 언어에서는 의미(13.5%), 화용(12.5%), 구문(9.9%)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해당 연구는 의미, 구문영역 뿐만 아니라 화용영역을 포함하여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말더듬아동이 화용영역에 대한 어려움 및 동반장애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Ribbler(2006)는 의사소통과 학업적인 능력, 학습, 사회 정서적 기능과 독립적 기능 영역에서 말 더듬는 아동들이 보이는 학업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였다. 이에는 과제 명료화를 위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꺼려함, 토론상황에서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감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말을 더듬는 아동들이 스스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규교육을 받기 전인 학령전기 시기에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을 미리 예방 및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수준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화용언어능력 평가방법

아동이 의사소통 맥락에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화용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아동이 참여하여 검사(test)가 이루어지는 직접평가방식이 있으며, 주 양육자 및 부모, 담임 교사, 언어재활사, 친한 친구 등 아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간접평가방식도 있다. 간접평가방식은 면담을 통해 보고 받기도 하지만 주로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아동의 말, 행동을 떠올리면서 질문지(questionnaires)나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하게 한다. 화용언어능력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능력을 뜻하므로 이를 구조화된 상황에서 검사 과정을 통해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 될 수 있음을 검사자가 염두하고 평가를 계획 및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Paul, 2012).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외에서는 직접평가도구로는 Test of Pragmatic Language-2(TOPL-2, Phelps Terasaki & Phelps Gunn, 2007), 간접평가도구로는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2(CCC-2, Bis-hop, 2003, 2006)가 있다. 먼저 TOPL-2는 물리적 맥락, 청자, 주제, 목적, 시각적-몸짓 단서, 추상적 개념, 화용 평가와 같은 7가지의 기초 화용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CCC-2는 말, 의미, 구문, 표현의 일관성, 정형화된 언어, 부적절한 개시, 비구어적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흥미와 같은 10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Volden & Phillips(2010)는 TOPL과 CCC-2 중 어떤 도구가 고기능 자폐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결함을 더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지에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CC-2가 더 많은 자폐범주성장애 아동들의 화용결함을 밝힐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간접평가방식이 사용되는 CCC-2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 외에 국외에서 사용되는 화용언어능력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Prutting & Kirchner(1983)는 아동과 성인 및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상황을 검사자가 관찰하면서 전반적인 화용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화용평가 프로토콜(Pragmatic Protocol)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은 크게 발화행동(구어 및 부차 언어적 요소, 비구어 요소), 명제적 행동(어휘 선택 및 사용, 낱말 관계 구체화, 유형변화), 언표내적 행위와 언향적 행위(화행, 주제, 순서 지키기)로 구분되어 있다. 검사자는 기록지에 있는 의사소통 행동들에 대해 '적절', '부적절' 그리고 '관찰기회 없음' 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지 선택반응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한다.

Girolametto(1997)도 CCC-2와 같이 부모보고를 통해 학령전기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의 틀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대화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며, 높은 내적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아동의 부모는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거의 아니다, 3=가끔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10개의 반응성 문항들과 15개의 주장성 문항들에 대해 평정하게 된다. 각 척도에서 3점 이하로 평정된 경우에 아동이 낮은 화용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반응성 문항의 예로는 "내가 질문을 하면 아이는 대답을 한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아이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아이는 다시 말한다."가 있다. 그리고 주장성 문항에는 "아이는 질문을 한다(말소리/몸짓/낱말을 사용해서)", "아이는 놀이나 게임을 함께 하자고 요청한다."와 같은 예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답한다.', '말한다.'라는 표현은 아동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말이 아닌 몸짓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다.

Creaghead(1984)도 땅콩버터 양식(Peanut Butter Protocol)이라고 불리는 학령전기 아동의 화용기술 평가 양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Girolametto(1997)가 제시한 질문지와는 달리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평가방식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검사자가 아동의 의사소통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맥락들이 제시되어 있어 보다 구조적인 상황에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맥락에서 기대되는 화용행동에 대해 아동행동은 무반응을 보였는지, 적절하게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잘 안 들리게)000 해줄까?"라고 검사자가 말하는 맥락에서 아동이 기대되는 화용행동인 명료화 요구하기를 하는지를 관찰 및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할 때, 녹화 상황에서 놀이에 대한 관찰과 행동 및 자발화 분석을 통해 홍경훈·김영태(2001)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표를 기준 삼아 화행의 출현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홍경훈·김영태(2001)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표는 Dore(1978)의 대화기능 분석표를 바탕으로 재분석한 것이며, 분석표에는 정보 요구, 행동 요구, 명료화 요구, 주의집중 요구, 사물 진술, 사건 진술, 설명, 부정, 자기생각, 진술, 의도 및 의지, 감정 표현, 강조하기, 경고하기, 놀리기, 농담하기, 대답하기, 혼잣말, 부르기, 인사하기와 같은 19가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행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검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검사자가 아동이 놀이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행동과 자발화에 대한 분석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Bishop, 1998). 그리고 다소 평가 및 분석 소요 시간이 긴 것에 비해 치료실 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평가결과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아동을 잘 아는 부모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화용언어 체크리스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대표성(representative)이 있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단시간에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아동 언어평가의 형태로 부모보고(parent report)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은 이에 대한 보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heehan & Sites(1989) 또는 Dale et al.(1989)은 부모가 아동이 현재 보이는 행동들에 초점을 두어 목록(inventory)이나 설문지(checklist)같은 인식적 양식(recognition format)을 사용하여 평가한다면 신뢰도와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의미, 구문, 형태 등 대상자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주로 표준화된 검사도구 사용이 권고된다. 왜냐하면 또래연령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 아동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용언어능력 평가는 정상적인 화용언어의 발달 순서 및 규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로 화용언어능력의 출현연령이 발달척도가 되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의 강·약점을 평가하기도 한다(이은주, 2010). 또한 국내에는 아직 표준화된 화용언어능력 평가도구가 출시되지 않아 이러한 영향들로 주로 관찰(observation rating)이나 성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보인 자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대표적,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을 수 있다. 최근에는 실제 아동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을 대표해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도구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예비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화용언어검사도구들은 국외의 연구방법을 번역해서 사용했을 때에 오는 문화적 차이를 없애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좀 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한다.

국내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평가도구들이 있다. 그 중 직접평가방식의 한국아동 화용언어능력 평가(KOPLAC, 김영태 외, 개발 중)가 있다. 이를 연구과제로 사용한 전혜인(2016), 백소정(2017)에 의하면, KOPLAC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화용연구실에서 개발 및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라고 한다. 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된 과제로는 아동의 화용능력을 6가지 하위영역 '대화 상대자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상황 문맥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담화 및 이야기 규칙', '간접표현 이해 및 대처', '참조', '반어 및 비유'가 있다고 한다. 총 10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별로 상황 그림과 이야기 녹음파일이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평가방법은 아동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질문을 통해 각 문항별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게 된다고 한다. 채점 및 분석과정을 통해 총 점수와 총 정반응률, 6가지 하위영역별 점수와 하위영역별 정반응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점수 및 %가 낮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간접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화용능력 체크리스트(CPLC, 오소정·이은주·김영태, 개발 중)가 있다. 이은주(2010)는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화용언어능력 평가 도구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용언어능력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용언어능력 평가 관련 자료수집과정을 거친 후, 사용되고 있는 화용언어능력 검사도구 및 절차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화용언어능력 평가를 위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표준화 된 평가도구에는 CCC-2, Pragmatic Profile(PP, 2003), Observational Rating Scale(ORS, 2003)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ORS 같은 관찰평가보다 CCC-2와 같은 아동을 잘 아는 성인이 작성하게 되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방법이 국외에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으며, 아동을 옆에서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성인이 평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화용언어능력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Bishop, 1998).

화용능력 체크리스트(CPLC)는 국외의 CCC-2의 장점을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 인 화용언어능력 검사도구로써 담화관리, 의사소통의도,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비언어적 의사소통화용언어능력 총 네 가지의 하위영역(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2차 내용타당도 4.17(0.54), 평가자간 신뢰도 .832), 예비연구에서 일반 아동과 주요 장애군(언어발달지체, 자폐범주성장애, 지적장애, 말더듬 등) 별 강·약점을 보이는 영역들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동 화용능력 체크리스트(CPLC)의 구성개념은 <부록-1>에 제시되어있다.

백소정(2017)은 일반아동, 고기능자폐아동, 화용문제가 있는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KOPLAC와 CPLC 두 평가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KOPLAC은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나, 6개의 하위영역 중 4개의 영역에서만 일부 집단들 간의 차이만 밝힐 수 있었으며, 간접평가방식인 CPLC는 일반아동 집단과 장애아동 집단 간(고기능자폐아동, 화용문제가 있는 언어장애아동)의 전체 점수, 4개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PLC에만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 의도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문항들이 화용평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줄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간접평가방식을 통한 화용언어능력 평가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Paul(2012)은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화용언어평가에 관해 언어재활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화용적 의사소통 기술이 의미 및 구문 능력보다 나은지, 못한지, 혹은 비슷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기능, 화용행동이 앞으로의 중재 방법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언어중재 맥락인 의사소통 상호작용에서 시범(modeling)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5.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인식과 의사소통 태도

학령전기 말더듬아동들의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부모보고, 관찰, 자기보고 등 다양하다. 90년대 이후부터는 간접적인 방법보다 말더듬아동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직접적인 자기보고 평가방법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Ambrose & Yairi, 1994; De Nil & Brutten, 1991;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5). 이러한 변화 흐름에는 비유창성 및 말더듬 인식이 시작되는 시기에 관해 살펴본 최근 연구 결과들이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근래에 진행된 연구들은 비유창성 인식 출현 시기에 대한 9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결과들에 근거한 전통적인 의견들과는 대조적이다. 학령기가 되어야 비유창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고 보았으나(Bloodstein, 1961; Van Riper, 1963), 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학령전기 아동들 대부분 비유창성에 대해 인식 하고 있으며(Ambrose & Yairi, 1994), 이르면 3세에도 비유창성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Ambrose & Yairi, 1994; Boey et al., 2009).

추가로 비유창성 및 말더듬 인식 출현 시기 외에도 비유창성 인식이 말더듬 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과 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의 변화 흐름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부모 등 청자의 비유창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아동이 비유창성을 인식하게끔 하며, 이러한 비유창성 인식이 말더듬을 시작하게 한다고 하였으며(Johnson et al., 1959), 말더듬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Bloodstein, 1961; Van Riper, 1982). 그러나 비유창성에 대한 인식이 비유창성 빈도를 늘리고 말더듬을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기 시작하면서(Logan & Carusi, 1997; Onslow, 1994),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에게도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감정 및 태도를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상가가 말더듬에 대한 아동의 감정, 의사소통 상황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교적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한다(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자기보고평가 중 국외에서는 개정판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CAT,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7)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3세~6세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기 위한 미국에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말더듬아동의 Cronbach's Alpha는 .75, 일반 아동의 Cronbach's Alpha는 .72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는 검사지에 포함된 총 12개의 질문들을 검사자가 읽어주고 이에 대해서 아동이 '예/아니오'로 대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2005)는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CAT, Vanryckeghem & Brutten, 2002)를 통해 3세~6세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말더듬아동 4.35점(SD=2.78), 일반아동 1.79점(SD=1.78)으로 나타났다. 즉,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본인의 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2005)는 각 집단 내에서도 3세~4세, 5세~6세로 나누어 말더듬 유무와 연령에 따른 의사소통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세~4세 말더듬아동 집단, 5세~6세 말더듬아동 집단 모두 각 연령대에 대응하는 일반아동 집단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높은 연령대의 아동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연령 외에도 말더듬 유무와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남자 아동 집단이 여자 아동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내에서도 개정판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CAT: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7)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지숙·심현섭·이수복(2013)은 이에 대한 한국어 번안에 대한 적절성을 검수 받은 후, 연구과제로 사용하였다. 리커트 척도(1점=부적절하다, 2점=중간, 3점=적절하다)를 통해 번안된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CAT: 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의 내용 타당도를 구한 결과, 평균 점수 3점으로 높은 내용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지숙·심현섭·이수복(2013)은 3세~5세 말더듬아동 60명과 일반아동 60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여, 두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말더듬아동 집단 내에서 연령(3세, 4세, 5세), 말더듬 중증도(약함, 중간, 심함)에 따른 의사소통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높은 의사소통 태도 점수를 보였다고 한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말더듬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높은 의사소통 태도 점수를 보였으며, 중증도가 심해짐에 따라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말더듬 평가에서 비유창성 유형 및 빈도와 같은 외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태도 등과 같은 내면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Ezrati Vinacour & Yairi, 2001;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5). 이에는 아동 본인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기보고 방식 사용이 선호되며, 최근 국내에서는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CAT: 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개발되어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부 학령전기 말더듬아동들은 비유창성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Bernstein Ratner, 1997; Langevin, Packman, & Onslow, 2010; Yairi, 1983), 대략 4세부터는 말더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수 있다고 한다(Ezrati Vinacour, Platzky, & Yairi, 2001).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 본인의 말하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및 태도를 보이는 말더듬아동의 경우에는 말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언어능력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언어재활사가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총 아동 수는 30명이며, 3세~6세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15명(남 11명, 여 4명)과 이들과 성별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동 15명이다. 생활연령과 언어능력에서 두 집단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연령(p=.9), 수용어휘능력(p=.878), 표현어휘능력(p=.909)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는 <표-1>에 제시하였다.

가.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1) 말더듬아동

말더듬아동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보고에 의해, 말더듬이 있고 이에 동반된 조음장애 등 말·언어장애가 없으며, 인지·신체·정서·말·언어발달이 정상이라고 확인된 아동이다. 둘째, 2급 이상의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가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Ⅱ』(Paradise-Fluency Assessment-Ⅱ: P-FA-Ⅱ,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를 실시하여, 말더듬으로 진단된 아동이었다. 만일 말더듬 치료를 시작한 경우, 치료기간이 6개월 이내였다. 셋째, 대화상황에서 연속적인 3개의 100음절마다 3회 이상의 비정상적 비유창성 유형(주저-비정상적, 간투사-비정상적, 미완성/수정-비정상적, 단어 내 반복, 비운율적 발성)이 나타났다. 넷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결과, 백분위 점수 10 이상에 속하였다. 다섯째, 부모 모두 한국인이며, 모국어가 한국어인 비다문화가정 아동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일반아동

일반아동은 말더듬아동 15명과 생활연령과 성별을 일대일로 대응하여 선정하였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말더듬을 포함한 말·언어 장애가 없으며, 인지·신체·정서·말·언어발달이 정상이라고 보고한 아동이다. 둘째, 대화상황에서 연속적인 3개의 100음절마다 비정상적 비유창성 유형이 3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결과, 백분위 점수 10 이상에 속하였다. 넷째, 부모 모두 한국인이며, 모국어가 한국어인 비다문화가정 아동이다.

<표-1>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말더듬아동							일반아동				
ID	성별	연령	어휘력 백분위 점수a)		말더듬b)		ID	성별	연령	어휘력 백분위 점수	
			수용	표현	백분위 점수	중증도				수용	표현
CWS_1	여	4;4	70-80	70-80	91-99	심함	CWNS_1	여	4;4	90-99	90-99
CWS_2	남	4;10	70	70-80	11-20	약함	CWNS_2	남	4;7	50-60	20
CWS_3	남	5;10	99이상	90-99	61-70	중간	CWNS_3	남	5;11	20	20
CWS_4	여	6;3	40-50	40-50	91-99	심함	CWNS_4	여	6;3	99이상	60-70
CWS_5	남	6;5	40-50	40	11-20	약함	CWNS_5	남	6;2	70-80	80
CWS_6	남	5;9	90	90-99	21-30	약함	CWNS_6	남	6;4	50	20-30
CWS_7	여	5;1	10-20	20-30	61-70	중간	CWNS_7	여	5;1	90-99	60
CWS_8	남	4;9	99이상	40	81-90	심함	CWNS_8	남	4;7	90-99	90-99
CWS_9	여	5;6	70-80	50-60	31-40	약함	CWNS_9	여	5;9	95	99이상
CWS_10	남	4;7	80-90	30-40	91-99	심함	CWNS_10	남	3;10	50	50
CWS_11	남	5;7	80-90	90-99	11-20	약함	CWNS_11	남	6;2	30-40	80
CWS_12	남	4;10	90-99	99이상	91-99	심함	CWNS_12	남	4;2	90-99	90-99
CWS_13	남	5;9	40-50	40	81-90	심함	CWNS_13	남	6;0	90-99	50
CWS_14	남	5;10	30-40	10-20	11-20	약함	CWNS_14	남	5;11	10-20	10-20
CWS_15	남	5;7	90-99	99이상	61-70	중간	CWNS_15	남	5;9	60	60

a)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b)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Ⅱ(P-FA-Ⅱ)를 통해 구한 결과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체크리스트 작성자 : 각 아동의 어머니

작성자는 각 연구 참여자 아동의 어머니로 제한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말더듬 경험이 없었다. 둘째, 연구자와의 면담과정에서 '말더듬는 아동들은 지능이나 언어능력이 낮다'와 같은 말더듬는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다.

2. 연구 도구

가. 학령전기 화용언어능력 체크리스트(CPLC-P) 제작과정

기존의 아동 화용언어능력 체크리스트(CPLC, 오소정·이은주·김영태, 개발 중)는 5세~12세를 대상으로 하며, 4개의 하위영역에 총 4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어린 연령대 3세~6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P)를 제작하였다. 각 하위영역 별 개념은 기존의 CPLC와 같으며,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CPLC-P 문항 선정을 위하여 CPLC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기준은 다음 3 가지와 같다. 1)서로 중복된 내용을 평가하는 문항들은 하나로 합하고, 2)발달상 학령전기 아동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항들은 제외하였다(9문항). 또한 3)학령전기 아동들의 화용언어능력 평가에서 다루어야 하는 대화차례의 시간적인 측면에 대한 문항은 새롭게 추가하였다(1문항). 이러한 문항 수정과정을 통해 총 35개의 CPLC-P 1차 문항들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 타당도 검증은 5점 척도(1점=전혀 타당하지 않다, 5점=매우 타당하다)를 통해 각 문항별 적절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CPLC-P는 위와 같은 1차 문항 선정과정 이후에 1차 내용 타당도 검증, 2차 문항 선정과정, 2차 내용 타당도 검증, 최종문항 선정과정과 같은 총 4개의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1차 내용 타당도 검증은 기존 CPLC 개발자에게 받았으며, 학령전기 아동들에게는 발달상 다소 어려워 바닥효과(floor effect)가 염려되는 문항들의 포함/제외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차 문항 선정과정에서 제외하였던 명료화 요구에 대한 반응을 묻는 문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하였으며(1문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총 36개의 CPLC-P 2차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2차 내용 타당도는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이상의 5인에게 검증 받았다. 그리고 Fehring(198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각 점수 마다 가중치(1점=0; 2점=.25; 3점=.50; 4점=.75; 5점=1.0)를 부여하고 각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했다. 그 결과, 문항 별 평균 타당도는 .88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제외된 문항은 없었으며, 내용타당도 지수가 .50을 초과하면서 .79 이하인 문항은 '비주요 특성(minor characteristic)'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18개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다. 또한 문항 이해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항 아래에 설명 및 예시를 추가하였다.

CPLC-P의 최종문항 선정과정에서 총 36문항이 선정되었으며, 담화관리(10문항),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7문항), 의사소통 의도(12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부록-2>에 제시되어있다. .

나. 언어 및 유창성 검사도구

(1)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Ⅱ(Paradise-Fluency Assessment-Ⅱ :P-FA-Ⅱ,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Ⅱ는 유창성장애의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유창성 평가 검사도구이며, 다양한 구어 평가 과제들을 통한 외현적인 특성 평가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내면적인 특성 평가가 가능하다. 모든 연령대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세 개의 연령대(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과제들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또한 구어과제는 선택과제와 필수과제로 구분되어 있어, 짧은 평가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필수과제만 실시하여 간단한 평가가 가능하다.

(2)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는 2세부터 성인까지의 전반적인 우리말 어휘능력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수용어휘능력은 4개의 그림을 한 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지에 제시하고 검사자가 말한 어휘를 대상자가 가리키도록 하며, 표현어휘능력은 대면 이름대기를 통해 확인한다. '정상발달', '약간 지연 및 유의 요망', '어휘능력발달지연'으로 나누어 판별할 수 있으며, 또래연령과 비교하였을 때의 대상자의 상대적인 어휘발달 수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아동용 의사소통 태도검사(Kiddy Communication Attitude Test :KiddyCAT, 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한글판 아동용 의사소통 태도검사(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는 기존의 3세~6세 아동들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유아용 의사소통 태도 검사(KiddyCAT, Vanryckeghem & Brutten, 2007)를 번역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번안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높은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치료사가 12개의 진술문을 학령전기 아동에게 들려주고 대답하게 하는 방식이며, 간단하고 쉽게 실시할 수 있다. 말하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예"라고 대답할 것으로 보이는 6개 진술, "아니요"로 대답할 것으로 보이는 6개 진술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상자가 이와 일치한 대답을 하면 1점, 일치하지 않은 대답을 하면 0점을 부여한다(범위: 0점~12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가. 자료 수집

연구자는 아동의 어머니와의 1:1 면담을 통해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함께 입실하여,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를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가 각각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될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평정기준과 기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보호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는 아동과 1:1 상황에서 자료수집 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말더듬아동 집단에게는 REVT, P-FA-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KiddyCAT(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을 실시하였고, 뽀로로 집놀이 등 아동이 선호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진행하였다. 일반아동 집단과는 REVT, KiddyCAT 실시 후, 말더듬아동 집단과 같이 놀이상황을 진행하였다.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자발화를 수집하여 이후에 전사, 분석하였으며 300음절 내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분석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해 모든 연구절차 과정은 캠코더 녹화상황에서 진행하였다.

나. 자료 분석

CPLC-P는 각 문항 당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3=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하위영역 별 점수와 총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때, 하위 영역 별 비교는 영역 마다 문항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위영역별 백분율(%)을 산출하여 영역 간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태도 점수는 이지숙·심현섭·이수복(2013)의 채점기준에 따라 말더듬아동이 대답할 것으로 예상되는 답과 일치하는 문항에는 1점,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는 0점을 부여한 후, 총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4.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2개의 결과수치에 대해 신뢰도 측정을 하였으며, 첫 번째는 연구참여자 집단 선정을 위해 실시한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 분석에 대한 신뢰도이다. 평가자 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와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측정하였으며, 일치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비정상적 비유창성 분석이 일치한 부분의 수를 비정상적 비유창성 분석이 일치한 부분과 불일치한 부분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과제 CPLC-P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검사자 간 신뢰도(inter-taster reliability)를 측정하였다. 이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해 측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에 대한 신뢰도

비정상적 비유창성 빈도에 대한 평가자 내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첫 분석을 실시한 날로부터 최소 25일이 지난 후, 무작위로 각 집단마다 3명씩 선정하여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치료학과 석사학위와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 2평가자가 독자적으로 총 6명 아동(말더듬아동 3명, 일반아동 3명)의 비정상적 비유창성 분석을 하였다. 제 2평가자는 이전에 말더듬아동의 초기 및 진전평가를 직접 진행하고 비유창성 빈도와 유형을 분석해본 경험이 있었다. 연구자와의 일치율을 구한 결과, 85.71%로 나타났다.

나. CPLC-P에 대한 신뢰도

CPLC-P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첫 분석을 실시한 날로부터 최소 25일이 지난 이후에 무작위로 각 집단마다 3명씩 선정하여, 총 6명의 어머니가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하였다.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93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검사자 간 신뢰도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낸 유치원 담임교사들이 분석하였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말더듬아동 담임교사 3명, 일반아동 담임교사 3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Pearson 적률상관계수 .8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5. 자료의 통계 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말더듬아동 집단, 일반아동 집단은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for Windows 22.0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CPLC-P 총 점수 평균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할 것이다. 말더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과 CPLC-P 4개의 하위영역 점수들에 따른 집단 내 변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ithin-subject)으로 설계된 이원혼합 분산분석(2x4 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말더듬아동 집단의 경우에는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추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결과

1.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CPLC-P 총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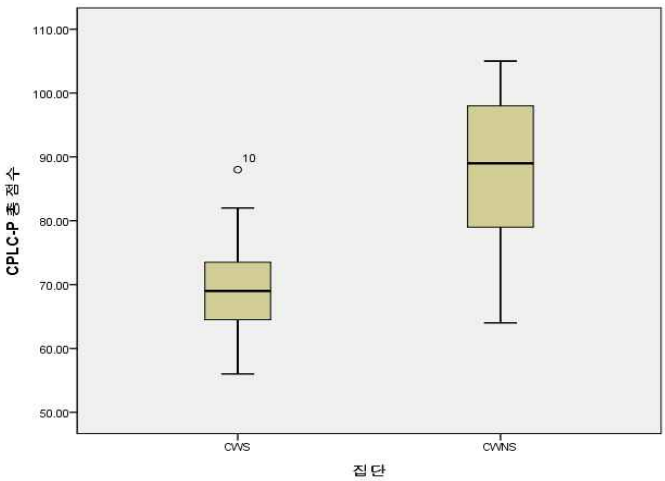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학령전기 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P) 총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와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말더듬아동 집단은 평균 69.533 점, 표준편차 8.228 이었고, 일반아동 집단은 평균 87.933 점, 표준편차 12.803 이었다. 즉, 일반아동 집단이 말더듬아동 집단보다 CPLC-P 총 점수 평균과 집단 내 점수 분포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다음으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두 집단이 보인 CPLC-P 총 점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아동 집단이 말더듬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CPLC-P 총 점수 평균을 보였다($p<.05$).

<표-2> 집단별 CPLC-P 총 점수 기술통계 결과와 집단 간 *t*-검정 결과

집단	M	SD	*t*	*df*	*p*
CWS(n=15)	69.533	8.228	-4.682	28	.000***
CWNS(n=15)	87.933	12.803			

***$p<.001$



<그림-2> 집단별 CPLC-P 총 점수 비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집단과 하위영역에 따른 CPLC-P 백분율 점수 비교

집단(2)과 CPLC-P 의 하위영역(4)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집단과 하위영역 조건이 화용언어능력 점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581). 따라서 두 조건별 주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집단(=23.134, p<.001)과 하위영역(=3.921, p<.05) 모두 유의한 주 효과를 보였다.

<표-3> 집단과 하위영역에 따른 CPLC-P 백분율점수 반복측정이원분산분석 결과

	제Ⅲ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집단	9085.010	1	9085.010	23.134	.000***
영역	631.960	3	210.653	3.921	.046*
집단*영역	100.884	3	33.628	.626	.690

*p<.05, ***p<.001

먼저 집단에 따른 CPLC-P 백분율 점수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아동 집단(M=81.333)이 말더듬아동 집단(M=63.93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CPLC-P 하위영역 백분율 평균 점수를 보였다(p<.05). 이는 CPLC-P 전체의 백분율 점수 평균 비교이며, 집단 간 CPLC-P 의 하위영역별 백분율 평균 점수를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4> 참조).

<표-4> 집단별 CPLC-P 하위영역 백분율 점수 기술통계 결과와 집단 간 t-검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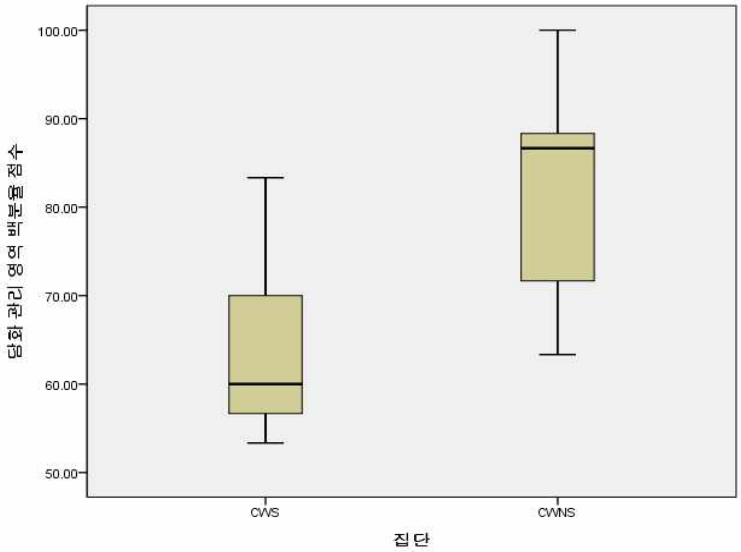
CPLC-P 하위영역	집단	M	SD	*t*	*p*
담화관리	CWS	63.556	8.950	22.021	.000***
	CWNS	80.889	11.160		
조절 및 적용	CWS	59.048	13.683	17.878	.000***
	CWNS	79.048	12.180		
의사소통 의도	CWS	67.407	10.523	10.254	.003**
	CWNS	82.222	14.502		
비구어적 의사소통	CWS	65.714	6.287	18.558	.000***
	CWNS	83.175	14.384		

*p<.05, **p<.01, ***p<.001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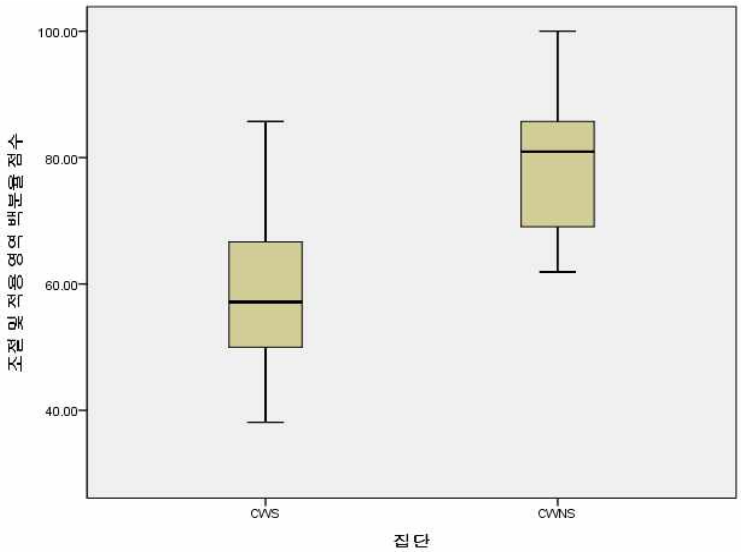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개의 하위영역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그림-3>과 같이 담화관리 영역에서 일반아동 집단(M=80.889)이 말더듬아동 집단(M=63.55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백분율 점수 평균을 보였다(p<.001).



<그림-3> 집단별 담화관리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조절 및 적용 영역에서도 <그림-4>과 같이 일반아동 집단(M=79.048)이 말더듬아동 집단(M=59.048)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백분율 점수 평균을 얻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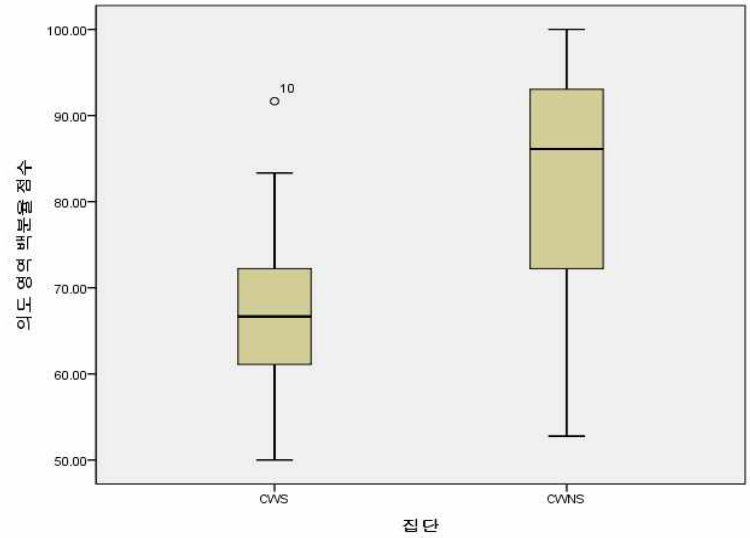


<그림-4> 집단별 조절 및 적용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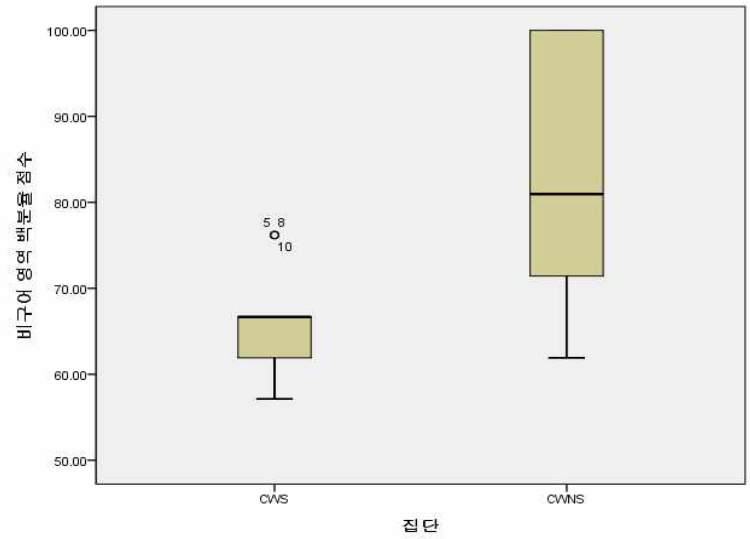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으로 <그림-5>와 같이 의사소통 의도 영역에서 일반아동 집단(M=82.222)이 말더듬아동 집단(M=67.40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백분율 점수 평균을 보였다 (p<.001).



<그림-5> 집단별 의도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마지막으로 비구어적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그림-6>와 같이 일반아동 집단(M=83.175)이 말더듬아동 집단(M=65.71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백분율 점수 평균을 획득하였다(p<.001).



<그림-6> 집단별 비구어 영역 백분율 점수 비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금까지 집단에 따른 주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하위영역에 따른 주 효과를 살펴보면, 4 개의 하위영역 중 어느 영역 간에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5>에 제시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의도 영역과 조절 및 적용 영역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령전기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영역 백분율 점수(M=74.815)가 조절 및 적용 영역의 백분율 점수(M=69.048)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학령전기 아동(말더듬+일반)의 하위영역 간 비교

하위영역I (평균)	하위영역J (평균)	평균차이(I-J)	p
담화관리 (M=72.222)	조절 및 적용	3.175	.536
	의사소통 의도	-2.593	1.000
	비구어적 의사소통 (M=74.444)	-2.222	1.000
조절 및 적용 (M=69.048)	의사소통 의도	-5.767	.044*
	비구어적 의사소통	-5.397	.098
의사소통 의도 (M=74.815)	비구어적 의사소통	.370	1.000

*p<.0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추가로 각 집단 내에서 하위영역 백분율 점수를 비교 하였을 때,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6>과 같이 두 집단 모두 4개의 하위영역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집단 별 하위영역 간 비교

집단	하위영역I	하위영역J	평균차이 (I-J)	*p*
CWS	담화관리	조절 및 적용	4.508	.767
		의사소통 의도	-3.852	1.000
		비구어적 의사소통	-2.159	1.000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8.360	.087
		비구어적 의사소통	-6.667	.248
	의사소통 의도	비구어적 의사소통	1.693	1.000
CWNS	담화관리	조절 및 적용	1.841	1.000
		의사소통 의도	-1.333	1.000
		비구어적 의사소통	-2.286	1.000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3.175	1.000
		비구어적 의사소통	-4.127	1.000
	의사소통 의도	비구어적 의사소통	-.952	1.000

*$p<.0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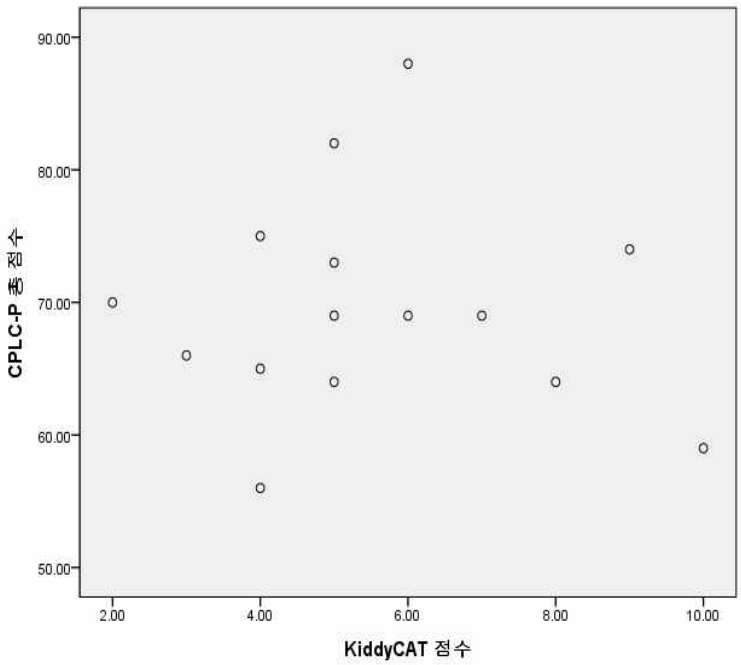
3. 집단 내 CPLC-P 총 점수와 의사소통 태도(KiddyCAT) 점수 간 상관분석 결과

말더듬아동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 점수(KiddyCAT) 평균은 5.533 점, 표준편차는 2.2 로 나타났다. CPLC-P 총 점수와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말더듬아동 집단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55, p>.05) 이는 <표-7>과 <그림-7>에 제시되어 있다.

<표-7> 말더듬아동 집단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상관관계

		KiddyCAT_점수
CPLC-P 총 점수	Pearson 상관계수	-.055
	유의수준(양쪽)	.845

*p<.05



<그림-7> 말더듬아동 집단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간의 산포도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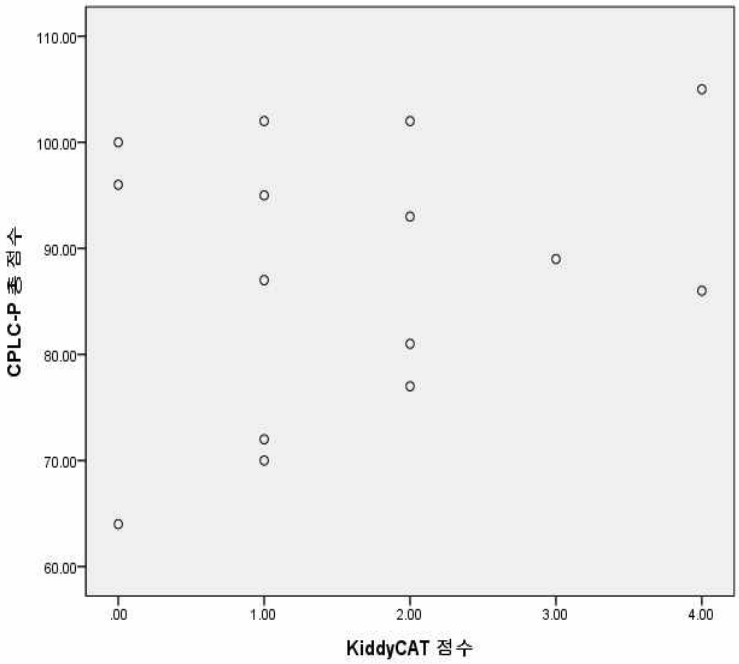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으로 일반아동 집단의 의사소통 태도 점수(KiddyCAT) 평균은 1.6점, 표준편차는 1.298로 나타났다. CPLC-P 총 점수와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아동 집단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226, p>.05) 이는 <표-8>, <그림-8>에 제시되어 있다.

<표-8> 일반아동 집단의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상관관계

		KiddyCAT_점수
CPLC-P 총 점수	Pearson 상관계수	.226
	유의수준(양쪽)	.418

*p<.05



<그림-8> 일반아동 집단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간의 산포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아동의 어머니가 작성한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P) 총 점수와 4개의 하위영역 백분율 점수(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구어적 의사소통)를 성별, 생활연령,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비교하였다. 또한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CPLC-P 총 점수와 아동용 의사소통 태도(KiddyCAT) 점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집단에 따른 CPLC-P 총 점수 비교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CPLC-P 총 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성개념이 같은 기존의 아동용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를 연구과제로 사용한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의 예비연구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높거나 비슷한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아니며, 추리통계 결과를 구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소 다른 방향의 기술통계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연구방법 측면의 차이점 4가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표집 수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집단별 15명씩 표집 한 것에 반해,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 연구는 말더듬아동 총 11명, 일반아동 집단 총 82명(남 n=39, 여 n=43)이었다. 집단 간 모집 수 차이가 크며, 말더듬아동 집단의 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적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다르다. 본 연구는 3세~6세 학령전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당 연구는 5세~12세로 더 높고 더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3세부터도 비유창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Ambrose & Yairi, 1994; Ezrati Vinacou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latzky, & Yairi, 2001), 대다수 아동들의 비유창성에 대한 인식 확인은 5세~6세가 되어야 할 수 있다(Ambrose & Yairi, 1994). 또한 학령기가 되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반경이 커지는 만큼 부정적인 의사소통 경험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높여서, 말더듬아동의 충분한 언어 사용에 제약을 주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노력하면서 정서적, 인지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 집단과 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본 연구와는 달리 말더듬아동 집단의 치료경험 및 기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치료경험이 있으며, 그 기간이 긴 경우라면, 아무래도 CPLC-P 총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PLC-P 작성자 범위가 다른 것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아동의 어머니로 제한하였으나, 해당연구는 어머니 외에도 아버지, 3촌 이내의 친척, 선생님 그리고 언어치료사 등이 작성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연구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령전기 외에도 학령기, 성인 연령대를 포함하여 보다 긴 말더듬 지속기간과 치료기간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용언어평가방법 중 각 아동의 어머니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간접평가방식으로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확인하였다. 말더듬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아동의 어머니보다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윤지·심현섭(2011)의 연구에서 사례 면담지,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 설문지(Woods & Williams, 1976)를 통해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의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면담을 통해 말더듬아동 집단 어머니들이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분, 감정 그리고 태도 등 심리적인 측면들에 대한 측정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즉, 말더듬아동집단 어머니들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각 말더듬아동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 및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과소평가되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CPLC-P 총 점수를 보였을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접평가방식을 사용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Shaheen, Anter, & Hussin(2012)는 직접평가방식과 간접평가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4세~7세 말더듬아동 집단이 가지고 있는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는 평가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언어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화용영역이 다른 영역들을 아우르고 있다(Owens, 2012). 김영태(2014)에 의하면, 화용영역 발달은 다른 언어영역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미영역, 구문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말더듬아동의 언어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논의해볼 수 있다. 화용영역 외 다른 언어영역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았으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능력 비교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였다. 먼저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Anderson & Conture, 2001; Guitar, 2014). 이와 본 연구결과를 연결한다면, 말더듬아동이 의미영역, 구문영역 뿐 만 아니라 화용영역에서도 일반아동보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과 같거나 더 높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Miles & Bernstein Ratner, 2001)와 관련해서는 3 가지 의견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은 말더듬아동이 적절한 의미·구문의미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화용언어능력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은 정상범주에 속하는 언어능력(어휘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의미언어능력과 화용언어능력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더듬아동 집단이 의미언어능력에 비해 화용언어능력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견은 의미, 구문 그리고 화용영역에서도 정상발달을 이루고 있지만, 말더듬 발생에 대한 불안,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CPLC-P 총 점수를 보였을 수 있다. 아무리 아동이 어려운 의미가 담긴 단어를 이해하고 있고, 길고 복잡한 문장 표현을 보이더라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Ribbler(2006)는 말더듬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에는 보다 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료하게 과제 설명을 듣기 위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연구결과를 통해 학령기 말더듬아동이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집단도 말더듬으로 인해 대화 및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의견은 신명선(2015)의 연구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연구결과에서는 유창성 요인에 대해 말더듬성인이 가지고 있는 인상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말더듬성인 집단은 화자의 의도나 주제유지와 같은 화용론적 측면보다 말이 생각이나 이치에 맞도록 논리정연하고, 어휘력이 풍부하면서, 구문론적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이 유창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말더듬성인 집단의 특성이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집단에게도 있었을 수 있다. 즉, 성인보다 더 이른 학령전기 시기에도 화용론적인 측면보다는 그 이외의 측면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여 화용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노력을 덜 기했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화용언어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음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말더듬 치료 경험이 있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동반장애에 대해서 살펴본 Blood & Seider(1981)의 연구에서는 총 1,060명의 아동 중 68%가 말, 언어 또는 학습문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령전기 시기에 유창성 평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말·언어발달을 고려하여 초기평가를 계획 및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화용언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CPLC-P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외에도 유치원 교사 등 아동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 다양한 성인들의 보고와 관찰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초기평가 이후에도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집단과 하위영역에 따른 CPLC-P 백분율 점수 비교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CPLC-P 4개의 하위영역별(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과 적용, 의사소통 의도, 비구어적 의사소통) 백분율 점수를 비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aheen, Anter, & Hussin(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화용언어능력 총 점수 외에 하위영역별 점수들을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물의 이름 및 기능 이해(object function)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들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를 보였던 하위영역에는 구어 이전의 의사소통, 사물의 이름 및 기능 이해, 대화 운용, 의사소통 의도, 담화 기술에 대한 하위영역들 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CPLC-P 하위영역 중 담화관리 영역, 의사소통 의도 영역, 비구어적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Shaheen, Anter, & Hussin(2012) 연구에서 차이가 없었던 사물의 이름 및 기능 이해에 대한 하위영역은 언어영역 중 의미영역과 관련이 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어휘력검사에서 일반아동 집단과 동질성을 보였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 수 있지만, 두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CPLC-P 의 4 가지 하위영역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담화관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Winslow & Guitar(1994)의 연구가 있다.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담화관리 능력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담화관리에서 중요한 대화차례주고받기(turn-taking)와 비유창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5 세 말더듬아동이 가족들과 저녁식사 하는 동안 나눈 대화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말 차례를 주고받는 것에서 오는 의사소통 요구가 클 때에는 비유창성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요구가 적을 때에는 유차한 발화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은 담화관리 영역 중 10 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M=1.231). 10 번 문항은 대화 상황에서 대화차례를 주고받는 간격에 관한 문항으로, 말더듬아동이 대화 상대방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집단도 일반아동 집단보다 빠르게 대화 차례를 주고받고 있는 대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두 연구는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치료에서 다루고 있는 부모의 여유 있는 대화차례주고받기가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화용언어능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치료에도 말더듬아동이 짧은 대화차례 간격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스크립트 문맥(script context) 등을 활용하여 치료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할 수 있다. Winslow & Guitar(1994)의 연구는 전반적인 담화관리가 아닌 담화관리 영역 중 대화차례에 대해서만 살펴볼 수 있었다.

전반적인 담화능력에 대해 살펴본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학령전기보다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Weiss & Zebrowski(1991) 연구에서도 학령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교실상황에서 나타난 담화능력을 일반아동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 아동이 말더듬아동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많은 담화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전기에서 나타난 담화관리의 어려움이 학령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평가 및 중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담화기술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른 조절과 적용 영역과는 Weiss & Zebrowski(1994)의 연구결과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 일반아동 집단이 사전지식이 없는 청자에게 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준 반면에 말더듬아동 집단은 본인의 비유창성 감소를 위해 사전지식이 있는 청자에게 들려줄 때와 비슷한 발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장소, 대화상대방 등에 따라 본인의 발화를 조절하는 것에서 일반아동 집단보다 어려움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집단도 상황에 적절한 말보다는 유창한 말을 하려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을 수 있다.

이러한 말더듬아동 집단의 특성은 말의 통제력 상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은 조절 및 적용영역에 대한 문항들 중에서 대화 상대방에 따라 음성 강도 및 음도 조절, 단어 난이도 그리고 구문 길이 및 복잡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12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M=1.385). 정상적인 비유창성과 말더듬의 가장 큰 차이는 통제력 상실이며(Manning, 2010), 대다수의 말더듬성인이 본인의 유창성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다고 보는 외재적 통제소를 가지고 있었다(이경재·신문자, 2010).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말더듬아동 집단이 말속도, 말의 시작과 같은 말소리에 대한 통제력 상실뿐만 아니라 강도, 음도와 같은 목소리(음성)에 대한 조절, 말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대한 조절에서도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의도 영역을 살펴본 연구에는 박지현(2002)과 곽자영(2008)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전체 의사소통 출현빈도에서 말더듬아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박지현(2002)과 곽자영(2008)은 구조화된 검사상황에서 연구자가 각 아동들의 의사소통 의도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아동의 어머니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화용언어는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구조화된 검사상황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성인의 관찰내용이 보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보다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평가방식과 간접평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두 방식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낮은 의사소통 의도 점수를 얻은 것에는 회피행동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즉, 특정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공포로 인해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유창하게 말할 자신이 있는 의사소통 의도만 표현하는 등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노유리(2003)는 말더듬아동 집단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비유창성 빈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와 연결하여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말더듬아동은 친구들과 저녁식사 메뉴를 고르는 과정에서 말더듬이 나타날까 봐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기 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따르거나 반응만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집단은 의사소통 의도 영역에서 대화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거부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22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M=1.615). 간접적인 거부는 직접적인 거부보다 어려우며, 발달상 늦게 나타나는 기능이다. 따라서 언어재활사는 말더듬아동의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발달상 어려울 수 있는 의사소통 의도 기능에 관심을 두고 평가 및 모니터링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말더듬아동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으므로, 각 말더듬아동의 개인차를 분명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구어적 의사소통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Langlois, Hanrahan, & Inouye(1986)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말더듬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비구어적인 반응 보다 구어표현을 통해 의사소통하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국내의 박지현(2002), 곽자영(2008)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비구어적 의사소통 영역에서 나타난 말더듬아동 집단의 낮은 점수와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Langlois, Hanrahan, & Inouye(1986)의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말을 잘 하고 싶지만 그 만큼 표현이 되지 않을 때, 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집단이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 것도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화를 피하려고 하려는 의도 때문에 나타난 것 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대화상황에서 대화 상대방을 적절하게 쳐다보는 것에 대해 묻는 30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M=0.687)를 보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더듬는 사람은 말더듬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고, 대화상대방과의 눈맞춤을 어려워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주연·이은주·황민아, 2008; 황민지, 2011). 말더듬아동이 대화 중 눈을 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 의도에 대해 언어재활사가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간 유의한 주 효과가 조절 및 적용과 의사소통 의도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말더듬아동 집단이 조절 및 적용영역에서 유독 평균보다 낮은 점수대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 수 있다. 그리고 각 집단 내에서 모든 하위영역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던 것은 본 연구의 3세~6세 연구참여자 연령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3세~4세쯤에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행동들이 거의 능숙해지게 된다고 한다(Adams, 2002). 더 어린 연령대의 경우에는 발달순서에 따라 영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각 하위영역 마다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차이가 없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하위영역별 화용언어능력을 살펴본 국내의 첫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언어재활사는 말더듬아동이 정상적인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충분하게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하위영역 프로파일을 통해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집단 내 CPLC-P 총 점수와 KiddyCAT 점수 간 관련성

본 연구에서 두 집단 모두 CPLC-P 총 점수와 의사소통 태도(KiddyCAT) 점수 간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화용언어능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즉,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말더듬아동 집단은 CPLC-P 총 점수에서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말더듬아동 집단이 화용언어능력에서 보인 어려움도 역시 의사소통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교적 말더듬 기간이 짧고,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질 확률이 적은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말더듬아동 집단, 말더듬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반아동 집단과의 비교하여, 말더듬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다음으로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주로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 또는 성별, 연령 그리고 말더듬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 태도 점수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의사소통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들을 비교하고,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하였을 때,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가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태도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화용언어능력 점수를 통해 의사소통 태도를 예측하거나 반대로 의사소통 태도를 통해 화용언어능력 점수를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더듬아동 집단의 낮은 화용언어능력 점수와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와 같은 내재적인 특성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도 단정 짓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즉, 말더듬아동이 말더듬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같은 내적인 요인과 대화참여와 같은 화용언어능력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더듬아동의 내재적인 특성을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평가가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말더듬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더듬아동들은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5). 하지만 해당연구들에서 모든 말더듬아동들이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Vanryckeghem, Brutten, & Hernandez, 2005). 그러므로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가 말더듬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의사소통 태도 외에 다른 내재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도 언어재활사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의사소통 태도 외에 다른 내재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고, 이들을 화용언어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이 보였던 낮은 화용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들을 포함하여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화용언어능력은 음운, 의미, 형태, 구문과 같은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인 요인들 외에도 말더듬아동의 성격, 외현적인 말더듬 특성(말더듬 빈도 및 유형, 중증도), 말더듬에 대한 주변의 반응들 등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 태도는 외현적인 말더듬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왔다(이지숙·심현섭·이수복, 2013). 그러므로 화용언어능력, 의사소통 태도 그리고 말더듬 중증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제안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더듬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특성과 연결하여 이 둘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국내의 첫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임상에서 언어재활사는 학령전기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의사소통 태도 각각에 대한 평가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시해줄 수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화용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간접평가방식의 과제만 사용하여 화용언어능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체크리스트 작성자의 주관에 따라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화용언어능력이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한국 아동 화용언어능력 평가(KOPLAC, 김영태 외, 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발 중) 등 직접평가방식의 과제를 포함하여, 두 평가 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모집에 관해서는 총 4가지의 개선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이들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을 제언한다.

1.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서 말더듬아동의 치료경험을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치료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화용언어능력과 의사소통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으로 추후에는 치료경험이 전혀 없거나 6개월 보다 더 짧은 기간의 치료경험이 있는 아동들로 제한하여 모집 하여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연령(3세, 4세, 5세, 6세)과 중증도(약함, 중간, 심함)에 따라 고르게 모집하지 못하였다. 각 연령에 따른 모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연령, 중증도에 따른 말더듬아동의 화용언어능력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
3.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서 언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언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와 같이 모든 언어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언어평가 포함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 각 아동의 어머니 선정기준 중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음을 확인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가 갖춰진 설문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 신뢰로운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 째, CPLC-P는 평가를 위해 제작되었지만, 이를 모니터링에도 활용한다면 학령전기 화용언어발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할 수 있다. 또한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태(2014).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제 2판』. 서울: 학지사.

김윤지·심현섭(2011). 말더듬 아동 어머니와 일반 아동 어머니의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 비교 연구.『특수교육학연구』, *45(4)*, 133-156.

김의향·김명순(2006). 7~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습득간의 관계. 『아동 학회지』, *27(6)*, 217-234.

김주연·이은주·황민아(2008).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중증도와 말더듬 지각 정도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4)*, 677-690.

곽자영(2008).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특성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권도하·신명선·장현진·김시영·김효정·박진원·정훈(2011). 『유창성장애』. 서울: 학지사.

노유리(2003).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와 비유창성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경주(2007). 과제에 따른 취학전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 가변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2002). 말더듬아동과 정상아동의 의사소통의도 출현율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소정(2017). 화용언어능력 직접 및 간접 평가를 통한 학령기 언어장애아동과 고기능자폐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수진(2014). 학령기 조음·음운장애아동과 말더듬아동의 내면적 특성.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문자(1997). 유창성장애의 특성 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 82-103.

신명선(2015). 말더듬 성인의 유창성 요인에 대한 인상적 특성. 『언어치료연구』, *24(1)*, 123-133.

심현섭·신문자·이은주(2010).『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Ⅱ, P-FA-Ⅱ)』.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소정·방희정·이순행(2010). 문법형성단계 2~3세 아동의 세부 몸짓 사용 비율의 변화: 사상적 몸짓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3*(*1*), 33-50.

이경재·신문자(2010). 한국 말더듬 성인 쓰기 내용의 오리진과 폰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5*, 433-443.

이은지(2013). 말더듬아동과 정상아동의 문장구성능력 비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2010). 국외 화용언어 평가 도구 분석. 『언어치료연구』, *19*(*4*), 109-132.

이지숙·심현섭·이수복(2013). 3-5세 일반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의사소통태도특성. 『특수교육』, *12*(*3*), 5-22.

이효진·김영태(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대화 말차례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6*(*2*), 293-312.

오선주(2014). 말 늦은 아동(Late-talker)의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 이해 및 표현 특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소정·이은주·김영태(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언어치료연구』, *21*(*2*), 111-135.

유정옥(2008). 역할놀이를 통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혜인(2016). 어휘능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기 저학년 아동의 화용언어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승희(2015). CPLC 체크리스트를 통한 어휘 발달 지연 위험군(at risk) 취학 전 아동의 화용 능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경훈·김영태(2001).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언어청각장애연구』, *6*(*1*), 17-39.

황민지(2011). 20대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dams, C.(2002). Practitioner Review: The assessment of language pragma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8*), 973-987.

Aeredolo, L. & Goodwyn, S.(1988). Symbolic gesturing in normal infants. C*hild Development*, *59*, 450-466.

Ambrose, N. & Yairi, E.(1994).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of stuttering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9*, 229-2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mbrose, N. G., Yairi, E., Loucks, T. M., & Seery, C. H.(2015). Relation of motor, linguistic and temperament factors in epidemiologic subtypes of persistent and recovered stuttering: Initial finding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5*, 12-2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 Arlington. VA, US: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Anderson, E.(1992). Speaking with style: The sociolinguistic skills of children. London: Routledge.

Anderson, J. D. & Conture, E. G.(2001). Language abilities of children who stutter: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5*, 283-304.

Anderson, J., Pellowski, M., & Conture, E.(2005). Linguistic variables in childhood stuttering: Speech-language dissociation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0*, 125-148.

Anderson, J. D.(2008). Age of acquisition and repetition priming effects on picture naming of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3*(*2*), 135-155.

Bates, E.(1976). *Language and context: The Acquisition of pragmatics*. NY: Academic.

Berndt, T. J.(1986).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Bernstein Ratner, N. E.(1995). Treating the child who stutters with concomitant language or phonological impairmen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6*, 180-186.

Bernstein Ratner, N. E.(1997). Leaving Las Vegas: Clinical odds and individual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6*, 29-33.

Bishop, D. V. M.(1998).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CCC): A method for Assessing Qualitative Aspects of Communicative Impairment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6*), 879-891.

Blood, G. W. & Seider, R.(1981). The Concomitant Problems of Youn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tutter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6*, 31-33.

Blood, G. W., Ridenour Jr, V. J., Qualls, C. D. & Hammer, C. S.(2003). Co-occurring disorders in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6*, 427-448.

Bloodstein, O.(1961). The development of stuttering: Ⅲ.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6*, 67-82.

Bloodstein, O. & Grossman, M.(1981). Early stutterings: Some aspects of their form and distribu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298-302.

Bloodstein, O.(2002). Early stuttering as a type of language difficult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2)*, 163-167.

Bloodstein, O. & Bernstein Ratner, N. E.(2008). *A Handbook on stuttering* (6th ed.). NY: Cengage Learning.

Bloom, L., & Lahey, M.(1978). Language development and language disorders. New York: John Wiley & Sons.

Bloom, L., & Tinker, E.(2001). The intentionality model and language acquis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4, Serial No. 267).

Boey, R. A., Heyning, P. H., Wuyts, F. L., Heylen, L., Stoop, R., & Bodt, M. S.(2009). Awareness and reactions of young stuttering children aged 2-7 years old towards their speech disfluency.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42*, 334-346.

Buhr, A. P.(2007). *The roles of syntactic and prosodic components of grammar in early childhood stuttering*. Iowa: The University of Iowa.

Capirci, O., Iverson, J. M., Pizzuto, E., & Volterra, V.(1996). Gestures and words during the transition to two-wor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3(3)*, 645-673.

Chapman, R.(1992). *Childtalk: Processes in child language acquisition*. St. Louis, MO: Mosby.

Clarizio, H. F.(1997). Conduct disorder: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32(4)*, 253-2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lark, E. V. & Sengul, D. J.(1978). *Strategies in the acquisition of deixis. Journal of Child Language*, *5*, 457-475.

Conture, E. G.(1997). Evaluating childhood stuttering. In R. Curlee & G. Siegel(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2nd ed., pp. 239-256).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Conture, E.(2001). *Stuttering: Nature, diagnosis, and treatment*. Boston: Allyn & Bacon.

Craig, H. & Washington, J.(1993). The access behavior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322-337.

Creaghead, N.(1984). Strategies for evaluating and targeting pragmatic behaviors in young children.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5*, 241-252.

Dale, P., Bates, E., Reznick, J., & Morisset, C.(1989). The validity of a parent report instrument of child language at twenty months. *Journal of Child Language*, *16*(*2*), 239-249.

Damico, J. & Oller, J. W.(1980). Pragmatic versus Morphological/Syntactic Criteria for Language Referral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1*, 85-94.

DeNil, L. F. & Brutten, G. J.(1991). Speech-associated attitudes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60-66.

Dore, J.(1978). Conditions for the acquistion of speech acts. In I. markova (Ed.), *The Social Context of Language*. Chichester: Wiley.

Ezrati Vinacour, R., Platzky, R., & Yairi, E.(2001). The young child's awareness of stuttering-like disfluenc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368-380.

Fehring, R. J.(1987). Methods to validate nursing diagnoses. *Heart and Lung*, *16*(*6*), 625-629.

Filmore, C. J.(1979). *On fluency. In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bility and language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Girolametto, L.(1997). Development of a parent report measure for profiling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versational skills of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6, 25-33.

Guitar, B.(2014).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4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lkins.

Hall, H. E.(1996). Language and fluency in child language disorders: Changes over time.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1*, 1-32.

Hall, N. E., Wargovich, S. A., & Bernstein Ratner, N. E.(2007). Language considerations in developmental stuttering. In E. Conture, & R. Curlee (Eds.), *Stuttering and related disorders of Fluency*, NY: Thieme.

Howell, P., & Auyeung, J.(1995). Syntactic determinants of stuttering in the spontaneous speech of Narmally fluent and stuttering children. *Stuttering and related disorders of Fluency*, *20*, 317-330.

Hymes, D.(1972). Introduction. In C. Cazden, V. Jhon, & D. Hymes (Eds.), *Functions of language in the classroom*.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Johnson, W., Boehmler, R., Dahlstrom, W., Darely, F., Goodstein, L., Kools, J., Neelley, J., Prather, W., Sherman, D., Thurman, C., Trotter, W., Williams D. & Young, M.(1959). *The onset of stuttering.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ra Press.

Lahey, M.(1988). *Language disorders and language development*. NY: Macmillan.

Langlois, A., Hanrahan, L., & Inouye, L.(1986). A comparison of interactions between stuttering children, nonstuttering children, and their moth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1*, 263-273.

Langevin, M., Packman, A., & Onslow, M.(2010). Parent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stuttering on their preschoolers and themselve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3*, 407-423.

Levelt, W.(1989). *Speaking*. Cambridge, MA: MIT Press.

Logan, K. J. & Conture, E. G.(1995). Length, grammatical complexity, and rate differences in stuttered and fluent conversational utterances of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0*, 35-6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Logan, K. J. & Carusi, A. J.(1997). Parents as partners in the treatment of childhood stuttering.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18*, 309-327.

Manning, W, H.(2010).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Clifton Park, NY: Delmar, Cengage Learning.

Meyers, S. & Freeman, F. J.(1985). Are mothers of stutters different?: An investigation of social-communicative interac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0, 193-209.

Miles, S., & Bernstein Ratner, N.(2001). Parental language input to children at stuttering onse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1116-1130.

Millard, S. K., Nicholas, A., & Cook, F. M.(2008). Is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effective in reducing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1*, 636-650.

Miller, J. & Paul, R.(1995). *The clinical assessment of language comprehension. Baltimore*, MD: Paul H. Brookes.

Ninio, A.(1994).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 and the vacabulary spurt. In K. Nelson & Z. Roger(Eds.), *Children's language*, *8*, Hillsdale, NJ: Elbaum.

Nippold, M. A.(1990). Concomitant 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in stuttering children: A critique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 51-60.

Nippold, M. A. & Schwarz, I. E., & Jescheniak, J. D.(1991) Narrative ability in school-age stuttering boy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6*, 289-308.

Nippold, M. A., & Rudzinski, M.(1995). Parent's speech and children's stuttering: A critique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 978-989.

Nippold, M. A.(2004). Phonological and 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 who stutter: Impact on treatment recommendations. *Clinical Linguistics and Phonetics*, *18*, 145-159.

Nippold, M. A., Hesketh, L. J., Duthie, J. K., & Mansfield, T. C.(200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versational vs. expository discourse: A study of syntactic development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 1048-1064.

Nippold, M. A.(2012). Stuttering and language ability in children: questioning the connectio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1*, 183-196.

O' Neill, D. K. & Topolovec, J. C.(2001). Two-year-old children's sensitivity to the referential in efficacy of their own pointing gestures. *Journal of Child Language*, *28*, 1-28.

Onslow, M., Costa, W. & Rue, S.(1990). Direct early intervention with stuttering: Some preliminary data.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8*, 405-416.

Owens, R. E. (2010). *Language disorders of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Owens, R. E.(2012). *Language development* (8th ed.). Boston, MA: Allyn & Bacon.

Paul, R.(2003). Enhancing social communication in high functional individuals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 87-106.

Paul, R.(2012).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 intervention* (4th ed.). St. Louis: Mosby.

Peter, T. J., & Guitar, B.(1991). *Stuttering: An inter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Baltimore*: Williams & Wilkins.

Prutting, C. A. & Kirchner, D. M.(1983). Applied pragmatics. In T. M. Gallagher & C. A. Prutting (Eds.). *Pragmatic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ssues in language*. 29-64. San Diego, CA: College-Hill Press.

Prutting, C. A. & Kirchner, D. M.(1987). A Clinical Appraisal of the Pragmatic Aspects of Language. *Journal of Speech-Language-Hearing Disorders*, *52*, 105-119.

Ribbler, N.(2006). When a student stutters: Identifying the adverse educational impact. *Perspectives on Fluency Disorders*, *16(1)*, 15-17. Rockville, M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Ryan, B.(1974). *Programmed Therapy for Stuttering in Children and Adult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Sawyer, J. & Yairi, E.(2006). The effect of sample size on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severity.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5, 36-44.

Shaheen, E. A., Anter, A, A. & Hussin, N, F.(2012). Pragmatic assessment in Egyptian stuttering children. *The Egyptian Journal of Otolaryngology*, *28*, 127-135.

Sheehan, R. & Sites, J.(1989). Implications of P. L. 99-457 for assessm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 103-115.

Siverman, S. & Bernstein Ratner, N. E.(2002). Measuring lexical diversity in children who stutter: Application of VOCD.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 289-305.

Starkweather, C. W.(1987). *Fluency and stutter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Thal, D. J. & Tobias, S.(1992). Communicative gestures in children with delayed onset of oral expressive vocabular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1281-1289.

Thal, D. & Bates, E.(1988). Language and gesture in late talk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1*(*1*), 115-123.

Throneburg, R, N., Yairi, E., & Paden, E, P.(1994). Relation Between Phonologic Difficulty and the Occurrence of Disfluencies in the Early Stage of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7*, 504-509.

Tiegerman-Farber, E. & Radziewicz, C.(2008). *Language disorders in children; Real families, real issues, and real intervention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Van Riper, C.(1963). Speech correction: Principles and methods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Van Riper, C.(1982). *The Nature of stuttering*. Englewood Cliffs, NJ: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rentice-Hall.

Vanryckeghem, M., & Brutten, G. J.,(2002). KiddyCAT: a measure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preschoolers' attitude. Asha, 7, 104.

Vanryckeghem, M., Brutten, G. J. & Hernandez, L. M.(2005).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speech-associated attitude of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0*, 307-318.

Vanryckeghem, M. & Brutten, G. J.,(2007). *KiddyCAT*. San Diego, CA: Plural Publishing.

Volden, J. & Phillips, L.(2010). Measuring pragmatic language in speak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Comparing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hecklist－2 and the Test of Pragmatic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9*(*3*), 204-212.

Wall, M.(1980). Acomparison of syntax in young stutters and nonstutter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5*, 345-352.

Watkins, R., Ambrose, N., De Thorne, L., Evans, K., Poegel, C., & Yairi, E. (2003). *Trends in expressive language associated with persistent and recovered stuttering I: Group dat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Weiss, A. L., & Zebrowski, P. M. (1991). A comparison of classroom discourse competencies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students. *A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tlanta, GA.

Weiss, A. L.(1994). Pragmatic and stuttering.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Studies,* Munich, Germany.

Weiss, A. L. & Zebrowski, P. M.(1994). The narrative productions of children who stutter: A preliminary view.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9*, 39-63.

Weiss, A. L.(2004). Why we should consider pragmatics when planning treatment for children who stutter.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5*, 24-25.

Wetherby, A. M., Gain, D. H., Yonclas, D. G., & Walker, V. G.(1988). Analysis of intentional communication of normal children from the prelinguistic t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multiword st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1*, 240-252.

Winslow, M. & Guitar, B.(1994). The effects of structured turn-taking on disfluencies: A case stud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5*, 251-257.

Woods, C. L., & Williams, D. E.(1976). Traits attributed to stuttering and normally fluent mal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9*, 267-278.

Yairi, E.(1983). The onset of stuttering in two-and three-yeat-old children: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8*, 171-177.

Yairi, E. & Ambrose, N.(1992). Onset of Stuttering in preschool children: selected facto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782-788.

Yairi, E., Ambrose, N. G., Paden, E. P., & Throneburg, R. N.(1996). Predictive factors of persistence and recovery: pathways of childhood stuttering. *Jouran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9, 51-77.

Yairi, E., & Ambrose, N.(2005). *Early childhood stuttering: For clinicians by clinicians. Austin*, TX: Pro-Ed.

Yaruss, J. S.(1997). Clinical measurement of stuttering behaviors. *Contemporary Issues in Communication Science and Disorders*, *24*, 33-44.

Yaruss, J. S.(1999). Utterance length, syntactic complexity and childhood stuttering. *Jorunal of Speech Hear Res*, 42, 329-344.

Zebrowski, P. M.(1994). Stuttering. In J. B. Tomblin, H. L. Morris & D. C. Spriestersbach (Eds.). *Diagnosis in Speech-Language Pathology*.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1> 아동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구성개념(CPLC, 오소정·이은주·김영태, 2012)

구인	개념	문항 예
A. 담화 관리	● 주제관리 - 주제제시 (topic intiation) - 주제유지 (topic maintainment) - 주제전환 (topic change) ● 의사소통단절 수정 ● 대화차례주고받기 (turn-taking)	· 한 가지 주제로 5회 이상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횟수가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다.
B. 상황, 청자, 맥락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 전제(presupposition) 능력 ● 언어사용역(Register) ● 참조기술 (referential skills)	· 듣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한 가지 지시어이 과도한 사용 없이 지시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C. 의사소통 의도	●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 ● 의사소통 기능의 성숙도 - 인지적 성숙에 따른 상급 의사소통 기능 ● 간접적 표현	· 자기가 잘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시범을 보이거나 가르칠 수 있다. · 화해하거나 조정할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언어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D. 비언어적 의사소통	● 눈 맞춤 ● 표정 ● 제스처 ● 신체적 접촉 및 거리	· 대화 시 상대방을 적절히 쳐다볼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화나거나 언짢음 등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2>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PLC-P, 오소정·박민아·신문자, 2017)

학령전기 화용언어 체크리스트 *

(CPLC-P;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Preschool, 오소정·박민아·신문자, 2017)

아동 이름(성별)	(남/여)	검사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이름		생활연령	년	월	일
아동과의 관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문시기 및 경력			

(아동의 부모님이 아닌 경우)
아동을 알고 지낸 시간

아동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요? 네 / 아니요

이 체크리스트(총 36문항 4 페이지)는 아동이 다른 사람과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동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묘사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아동의 평상시 대화행동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기준 및 번호 : 전혀 그렇지 않다 = 0, 그렇지 않다 = 1, 그렇다 = 2, 항상 그렇다 = 3

하위영역	문항번호	내 용	번 호			
			0	1	2	3
담화관리	1	아동이 먼저 말을 거는 횟수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다.				
	2	자신의 관심주제 뿐 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관심 주제에 대해서도 고려하며 이야기를 한다. * 설명 및 예) 청자가 흥미 없어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자아이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로보캅 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자 친구에게는 '겨울왕국 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3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주제를 유지하면서, 대화 상대방과 3회 이상 말을 주고받는다.				
	5	접속사(원인-결과 또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주는 등)를 사용하여 앞의 말과 연결된 문장을 사용한다. * 예) 아이 : "엄마,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아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거든요."				
	6	대화 주제를 바꿀 때, 주제가 바뀐다는 것을 적절히 표시한다. * 설명 및 예) 엄마와 유치원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내일 준비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그러는데~"와 같은 구, 문장 등을 사용하며 주제를 바꾼다. 아이 : "오늘 유치원에서 모래놀이를 했어요." 엄마 : "우와, 모래로 뭐를 만들었어?" 아이 : "성을 쌓았어." 엄마 : "정말? 좋았겠다." 아이 : "네. *아! 엄마 ~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일 앞치마를 가져오래요."				
	7	이전 대화 중 본인 또는 대화 상대방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꾼다. * 예) (과일 그림책을 보면서) 선생님 : "우와 ~ *과일*들이 맛있겠다!" 아이 : "나는 우유가 좋아요. 초코우유!" 선생님 : "아 그래? 우유도 맛있지 ~ 선생님은 딸기우유를 제일 좋아해~" 아이 : *"선생님은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8	대화하다가 자신이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대화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달라거나 더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예) 아이 : "내일 소풍 가요." 아빠 : "어디로 가니? 타지로 가니?" 아이 : *"네? 타지가 뭐에요, 아빠?"* (설명요구)				
	9	대화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낱말의 뜻이나 설명, 상황 등을 적절히 보충해서 설명한다. * 예) 아이 : "번개파워~" 아빠 : "응? 그게 뭐야?" 아이 : *"번개맨이 악당이랑 싸울 때 이렇게 해요.* 번개파워!"				
	10	대화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시간적인 측면에서 여유 있게 대화를 주고받음). * 설명 및 예)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대답 및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황에 따른 조절과 적용	11	대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반말/존댓말을 적절히 사용한다.				
	12	대화 상대방에 따라 목소리(크기나 높낮이), 말의 내용(단어 난이도, 문장길이)을 다르게 한다. * 예) 1)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께 큰 목소리로 말하기 2) 어린 동생에게 쉬운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13	지시어를(이/그/저, 이거/그거/저거, 여기/저기/거기) 적절하게 사용한다(단, 한 가지 지시어만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음).				
	14	상호관계가 있는 말들을(안녕히 계세요/안녕히 가세요, 가져오다/가져가다, 빌리다/빌려주다) 적절하게 사용한다. * 예 1) (손님들이 돌아갈 때) 아이 : "안녕히 *가세요*." (친구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이 : "안녕히 *계세요*." 예 2) 아이 : "나 삼촌 핸드폰 *가져갈래*." 삼촌 : "삼촌도 조금 이따가 필요한데?" 아이 : "내가 곧 *가지고 올게*."				
	15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나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잘 듣는다. * 설명)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고,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듣는다.				
	16	학예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갖춘 말투나 단어를 사용한다.				
	17	역할놀이를 할 때, 맡은 역할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를 바꾼다. * 예) 아빠 역할 : 낮은 목소리로 평소 아빠의 말투 흉내 내기				
의사소통 의도	18	자신이 말하고 싶은 물건을 적절하게 꾸미는 말을 사용해 비슷한 물건들과 구별하여 특정 지을 수 있다. * 예) 1) (블록놀이를 하면서) "*동그란 검은색* 블록 주세요." 2) (퀴즈게임을 하면서) "얘는 몸이 *커요*." "코가 *길어요*."				
	19	간접적인 요구(물건, 행동)를 이해하여 반응한다. * 예) (밤에 잠을 자야하는 상황에서) 엄마 : "어~? 밖에 좀 봐.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네?" 아이 : "힝, 벌써 *자야해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적절하게 질문한다.				
	21	다양한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정보요구)에 적절히 대답한다.				
	22	대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거부하는 표현을 적절하게 한다.				
	23	유머 및 농담과 같은 말장난에 적절히 반응하며, 본인도 말장난을 구사할 수 있다. * 예) 엄마 :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다니는 개는?" 아이 : "모르겠어요~" 엄마 : "이쑤시~개!" 아이 : *"아, 그렇구나(이해하고 반응),* 엄마~ *병아리가 자주 먹는 약은 뭘까요?(본인이 구사)"* 엄마 : "응? 뭘까~" 아이 : "삐약삐약~"				
	24	놀이를 할 때, 상상한 것을 표현하면서 상황이나 장면을 가정한다. * 예) "이게 큰 빌딩이고, 이게 자동차라고 하고, 여기 불이 났다고 하자."				
	25	적절한 때에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말로 표현한다.				
	26	내일이나 다가올 자신의 생일 등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 할 수 있다.				
	27	상투적이지 않은 말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 * 예) (좋아/나빠 등 이분적 평가가 아니라) 엄마 : "소풍은 어땠어?" 아이 : *"조금 춥긴 했지만 재미있었어."*				
	28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나 생각 및 기분을 알고 있음을 표시한다. * 예) 엄마 : "고추가 엄청 맵다~" 아이 : *"엄마, 물 가져올까요?"*				
	29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하는 일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가르친다.				
비구어적 의사소통	30	대화 할 때, 적절히 대화 상대방을 쳐다본다.				
	31	다른 사람 얼굴 표정 및 제스처를 보고 화났거나 언짢음 등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2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처럼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얼굴표정을 달리한다. * 예) 공포 영화를 보는 상황 : 무서워하는 표정 친구가 손을 다친 상황 : 걱정하는 표정				
	33	주의를 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어깨나 신체부위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34	제스처(몸짓)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 예) 친구를 격려하거나 칭찬할 때, '최고', '잘했어.'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 치켜들기				
	35	말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은)를 적절히 유지한다.				
	36	대화 시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경우,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본 체크리스트는 오소정 · 이은주 · 김영태(2012)의 '화용능력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Collection @ chosun